

The-K



Monthly Magazine
November 2017
Vol 03

CONTENTS

2017 NOVEMBER VOL.03



SPECIAL THEME 도전, Challenge

4

여는 글
인생에 느낌표, 도전

6

Infographic
우리 삶의 도전에 대하여

10

Essay
당차게 도전하고 멋지게 실패하자
김현주 의정부 천보중 교사

12

Interview 1
아이들을 통해 다시 찾은 빛
이우호 대구예담학교 교사

16

Interview 2
도전하는 멋진 젊음! 내가 바로 '강원도 선생님'
강승철 원주 단관초 교사
고광진 원주 평원초 교사
김혜은 춘천 성원초 교사
박지우 춘천 성원초 교사

20

아름다운 동행
여행으로 나를 만나다, 세상을 보다
'짱아 선생'의 부산 일광역 주변 나들이
장은숙 부산 정관고 교사

26

먼 나라 교육 편지
들어본 적 있나요, 스와질란드?
김성진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파견교사

30

아는 공간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경주솔거미술관

32

트렌드 Go Go
새로운 트렌드, 은행이 바뀌고 있다

34

행복 만들기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
인성교육연구회 'GSGT'

38

네오필리아
쌀쌀해진 날씨, 이번 주말에는 뭐할까?
복합문화공간 5곳

40

브랜뉴 여행
커피 향 가득한 거리를 산책하다, 미국 '시애틀'



The·K

VOL.03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46
추천 핫플레이스
광주제일고 주변 먹거리

48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50
재테크 팩토리
연말, 저금리 극복을 위한 세테크 전략

52
The-K Focus
풍요로운 노후 위한 고이율·저과세 연금형 상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54
The-K Family
품격 높은 실버타운
'The-K서드에이지'

58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1
독자 이벤트
11월 즉석 당첨 이벤트

62
The-K Info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제도 및 서비스 안내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60) www.ktcu.or.kr
발행일	2017년 11월 1일
편집	
기자	이미진 leemj@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유현경 정은주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seo@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kj2@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김홍진 황원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인생에
느낌표,
도전

Challenge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어느새 1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한도전이 없는 토요일은 무료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들의 거침없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건 무한 경쟁의 시대, 경쟁으로 인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이 마음의 균형과 정신력을 유지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보는 것만으로 도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것인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자신 혹은 상대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도전을 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이 반이다”는 명언을 남겼으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말로도 유명한 복싱계 전설 같은 인물 무하마드 알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하길 두려워하는 바,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고 도전을 통해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질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가 도전이었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경쟁 세포들을 제치고 당당히 이 땅에 태어났으며, 뒤집기부터 시작해 첫발을 내디딘 가슴 뛰는 도전의 순간들… 모두 기억하시지요?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작은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전은 시간과 함께하기에 내일을 살기 위한 오늘, 바로 이 순간도 도전인 셈이지요.

그러니 무언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염려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도전에 대한 총체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도전은 또 가치 있는 내일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유 있는 도전에 나서보세요. 도전에 나서기 좋을 11월의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마음을 적십니다.



“오늘 또, 어떤 도전을 꿈꾸시나요?”

우리 삶의 도전에 대하여



100세 시대를 앞둔 지금, 황혼의 아름다운 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한 해를 마감해가는 즈음에서 우리 회원들은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기간 2017년 9월 26일 ~ 10월 9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16,163명

성별	남성	42.3%
	여성	57.7%
연령	20대	8.8%
	30대	28.3%
	40대	28.8%
	50대	22.6%
	60대 이상	11.6%
	직업	교원
직업	비교원	41.8%
	유치원	2.2%
	초등학교	25.2%
	중학교	13.1%
근무하는 직장	고등학교	15.9%
	대학교(병원)	28.0%
	교육 연구/행정/연구기관	6.2%
	기타	9.3%

Q. 스스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내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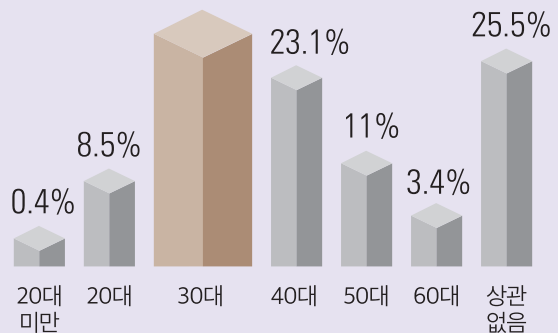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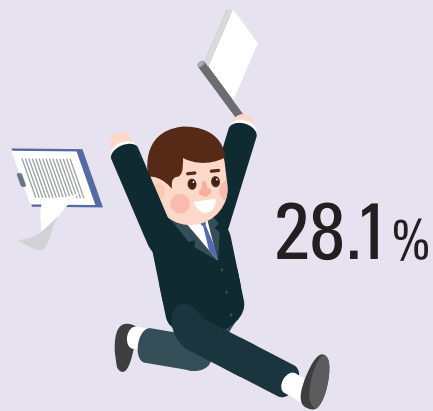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15.5%

주변 지인들의 도전과 성공을 봤을 때
15.2%

기타
0.6%

주변 지인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을 때
5.7%

Q. 실패를 무릅쓰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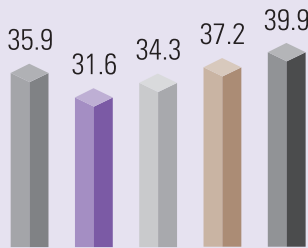


Q. 살아오면서 해보지 못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 20대 ■ 50대
■ 30대 ■ 60대 이상
■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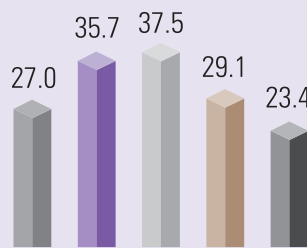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 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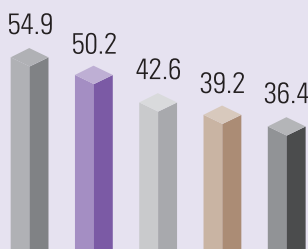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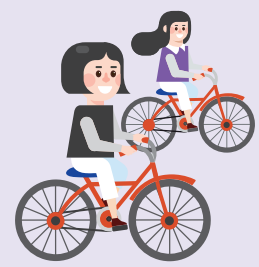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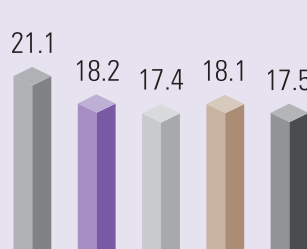
여행을 더 많이 해볼 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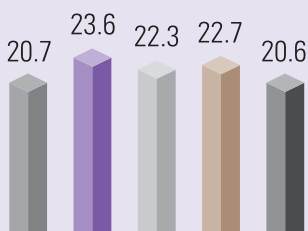
더 많은 친구를 사귈 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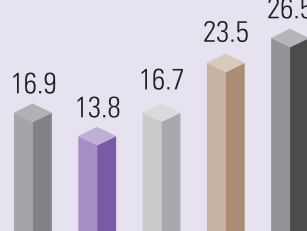
돈 좀 열심히 모을 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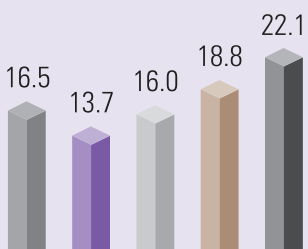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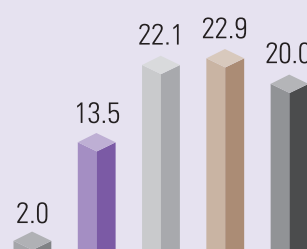
건강관리 열심히 할 걸

(단위: %)



결혼을 신중히 할 걸

(단위: %)



기타 보기 부모님께 효도할 걸, 다른 직업을 선택할 걸, 일을 적당히 하고 좀 더 놀 걸, 내 뜻대로 살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이라도 해볼 걸, 그때 결혼할 걸, 일을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는 것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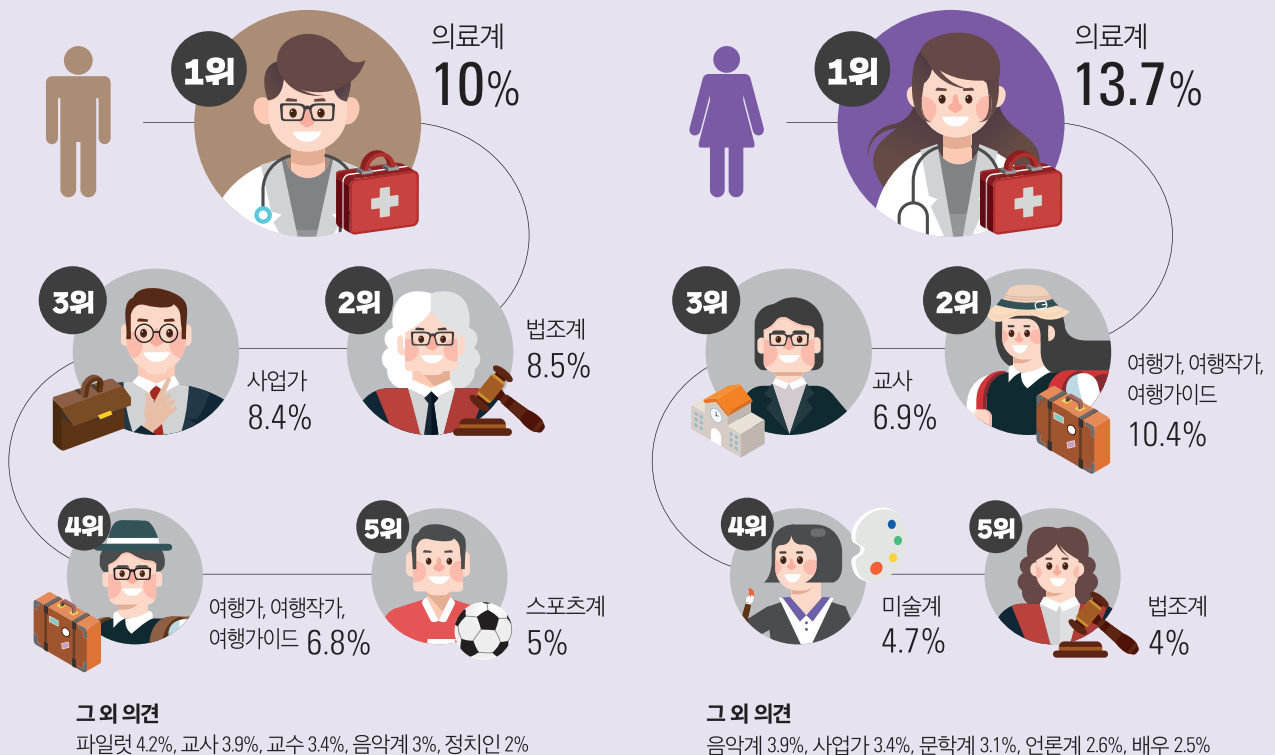
Q. 도전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그 이유는?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서	16.7	25.1	23.9	17.4	11.6
정착, 안정되어야 할 시기라서	20.0	19.8	16.5	19.5	24.0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18.4	18.4	21.4	19.5	15.6
실패했을 때 만회할 여유가 없어서	17.9	14.6	13.0	14.7	17.9
중도에 포기할 것 같아서	13.5	12.4	14.8	16.4	15.0
도전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	10.6	7.7	8.7	10.9	13.7
기타	2.9	2.0	1.8	1.6	2.2



Q.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은 무엇인가요?(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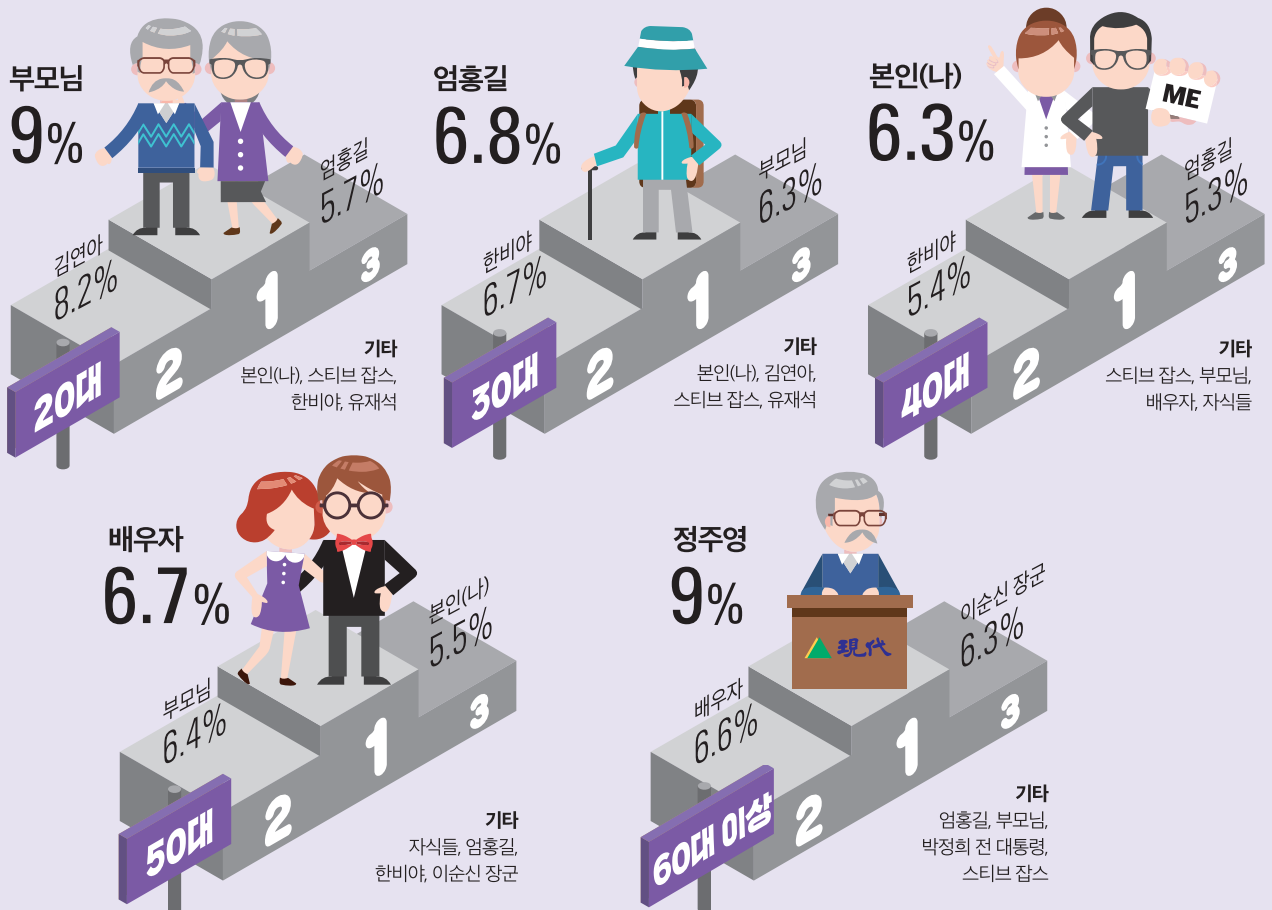
Q. 지금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단위 : %)



기타 보기 다이어트, 결혼, 연애, 금연, 성형, 기타

Q. '도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 한 명만 적어주세요 / 주관식)



도전의 과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

당차게 도전하고 멋지게 실패하자

“이렇게 추운데 아이스티가 팔리겠니~?”

“그럼 달걀빵이나 어묵으로 바꿔 볼까?”

“어묵은 국물 맛이 중요한니, 국물 맛의 비법을 찾아보자. 모두 우리 동네 어묵 파는 곳에 가서 먹어보는 거 어때?”

2015년 12월. 의정부 청소년 9명은 스스로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마을학교인 ‘꿈이룸학교’에서,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청소년들이 이번에는 겨울방학 두 달 동안 교육과정을 스스로 짜는 것 뿐 아니라 학교를 직접 만들어 학생을 모집하고 도움을 줄 교사들을 섭외하고 예산을 운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도전, 자립, 재미라는 목표를 실현해 볼 학교를 만들기로 하였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포롱포롱 포로롱’이라는 청소년 창업 학교에 도전하였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묵, 컵밥, 토스트를 팔아보기로 결정하고 푸드 트럭을 대여하기까지 했는데 한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트럭을 아무 곳에 세우고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미성년자 판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장사가 가능한 곳을 알아보기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계신 분을 모셔다가 컨설팅을 받고, 관계 법령들을 찾아보고, 시청 담당 직원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추위가 매섭던 2016년 1·2월. 결국 포롱포롱 포로롱 학교는 7번의 장사를 했고, 70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였습니다.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기도 했으며,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됐고요.



학교는 타인과 함께 생활하며 세상에서 헤쳐나갈 길을 스스로 찾고 많은 연습과 경험, 노력과 실수를 통해 지식, 깨달음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의 과정 속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와 사회를 바라보면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교과서 지식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 하고, 대부분 교사 또는 학부모에 의해 기획되고 진행되는 일방적인 교육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배움은 본인이 주체가 될 때 몰입할 수 있으며, 경험해 볼 때 가장 큰 배움으로 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즐겁고 신나지 않은 것이 요즘 아이들 모습 같습니다. 어른들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마련해 아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필요한 배움을 찾아 나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의정부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불안한 학교와 사회에서 꿈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교육의 문제를 개인이, 학교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둘러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문제제기 속에서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고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의미있는 교육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민·관·학이 함께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꿈이룸학교’라는 마을 학교, 지역학교 형태로 구체화 되었고 그간 혁신교육을 통해 시도된 다양한 배움이 학교를 넘어서 마을의 센터형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삶과 맞닿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지역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배움을 기획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도전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룸학교는 500명의 경기북부 청소년들이 20개의 마을프로젝트, 10개의 창업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 청년·지역주민·학부모·교사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길잡이 교사들이 매주 학생들과 만나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는 주도적·자율적·창의적·협력·융복합 등 새로운 역량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필요한 교육은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융통성 있게 사고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 낼 줄 알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 새로움과 다름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맘껏 실패해도 되는 기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답이 없는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도 스스로 길을 찾고, 없으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당차게 도전하고, 멋지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학교가 가야 할 길이고,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맘껏 실패해도 되는 기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답이 없는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도 스스로 길을 찾고, 없으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당차게 도전하고, 멋지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학교가 가야 할 길이고,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김현주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슴이 뛰는 것에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 21년차 중학교 영어교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마을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아이들을 통해 다시 찾은 빛

이우호 대구예담학교 교사

Right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찾아나아가는 사람.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귀감이 되는 스승이 있을까. 대구예담학교에 재직 중인 이우호 교사는 청년 시절 겪게 된 시각장애를 딛고 교사가 되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의 길을 찾아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두려움 없이 미래로 나아가길 격려하는 '실천하는 스승'이다.

특별한 교사의 행복한 교실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 제가 판서하다가 글씨나 밑줄이 조금 이상해지면 ‘선생님! 고치러 나갈게요’라고 얘기하고 나온다니까요.”

수업 중 학생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음 짓는 이우호 교사. 조금은 서먹하고 어렵게 느껴질 사제시간 일 법도 한데, 이 교사가 학교에서 겪는 특별한 에피소드에는 이유가 있다.

이우호 교사는 1급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교사다. 장애 교사라면 당연히 특수학교에 재직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그는 교직에 종사한 이래 줄곧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왔다. 대구경북여고에서 재직하다 올해 자리를 옮긴 대구예담학교는 따지고 보면 평범한 학교가 아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탁하기 위해 만든 공립학교로 고3 학생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사는 수업 과목과 과정은 물론 학생들도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아 일반 학교 선생님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수업 중에 조는 학생, 떠드는 학생도 귀신같이 알아낸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업 보조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업 준비를 완벽히 하기 위해 다른 교사보다 3~4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막상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난감할 수 있다고요. 졸업장이나 자격증도 일종의 준비니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준비

이우호 교사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중도시각장애인이다. 짐작할 수 있듯 그가 교사가 되는 과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가 시력이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건 20대 초반.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서에서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병명을 처음 알았고, 곧이어 치료 방법은 없으며 점차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딱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많이 방황했죠.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조금 안정이 되자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력을 잃어가는 그가 독서를 하기란 쉽지 않았다. 우연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녹음된 책을 빌려 주는 도서관을 알게 됐고, 많은 점자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어둠 속에 있던 그에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작은 희망이었다.

책을 빌리기 위해 물어 물어 힘들게 장애 등급을 받고, 결국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에 입학했다. 20대 중반에 새로 시작하게 된 고등학교 생활. 그는 특수학교에서 ‘점자’라는 새로운 글자를 익혔고, 캄캄해진 세상에서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가장 빛나고 자연스러운 이름

그는 웬지 모르게 언젠가부터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을 찾은 것 같아요. 특수학교에서 저를 격려하고 배려해주신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교사가 된다는 건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다가왔다.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대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는 12년간의 부단한 노력 끝에 2013년 영어교사가 되어, 4년간 경북여고에 재직하다가 올해 3월, 대구 예담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교사가 되고 보니 상상하던 그대로였어요. 제가 복이 많은지,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아요.”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심전심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우호 교사. 그가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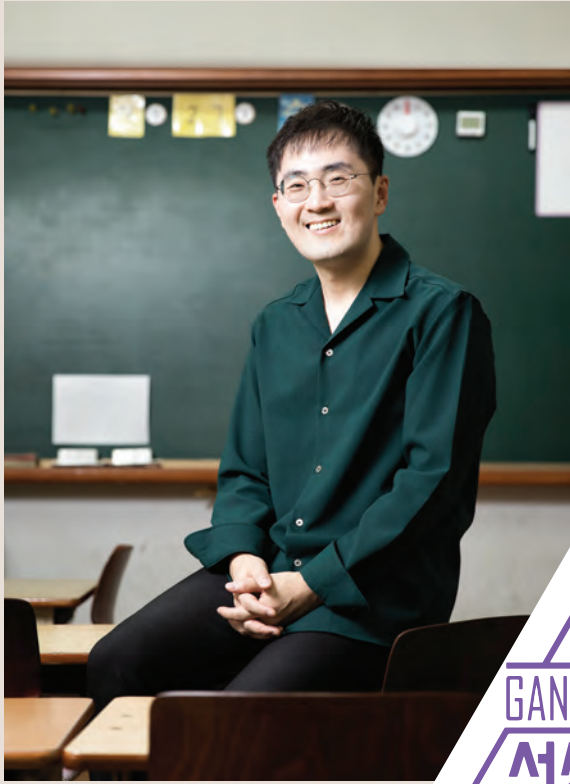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막상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난감할 수 있다고요. 졸업장이나 자격증도 일종의 준비니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시력을 딛고 교사가 되고, 이후에도 석사·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그가 삶에서 얻은 단단한 교훈이기도 하다. 책을 읽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교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이들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교사는 여전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어요. 그러자니 할 일이 많더라고요. 법도 알아야 하고, 외국 사례도 공부해야 하고요.”

새로운 꿈을 위해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우호 교사. 그러나 그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에도 꼭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한다. 행복한 교실,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라는 자리다.



강승철 원주 단관초 교사



고광진 원주 평원초 교사



김혜은 춘천 성원초 교사



박지우 춘천 성원초 교사



내가 바로 「강원도 선생님」

도전하는 멋진 젊음!

Pick me

얼마 전 이색적인 동영상 한 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현직 교사와 학생들이 인기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나야나' 뮤직 비디오를 패러디해 제작한 '강원도 선생님은 너야너'가 바로 그것.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성 가득한 진짜 강원도 선생님들의 특별한 도전기를 들어본다.

교사가 즐거워야 아이들도 행복

남들과 똑같아서는 이목을 끌기 어려운 시대. 올해 강원 지역 임용시험 홍보 전략은 '역대급'이었다. 실제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기발랄한 젊은 교사들이 함께 모여 아이돌 그룹 패러디 동영상을 제작한 것. 그중에서도 시종일관 센터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으니, 강원 지역 학교에서 7년째 근무 중인 강승철 원주 단관초 교사다. 어쩐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역시 대학 시절 댄스 동아리 출신이란다. 게다가 요즘도 퇴근 후 매일 한 시간씩 취미로 방송 댄스를 배우고 있다고 하니 제대로 물 만난 셈이다.

“원곡의 안무 난이도가 꽤 높아요. 30대 중반에 10~20대 춤을 따라 추려니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도 했지만 좋은 취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기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사실 중학생 때부터 가수를 꿈꿨거든요. 마치 일일 아이돌 체험을 한 기분이에요.”

그는 선생님이 즐겁고 행복해야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힘이 전달된다는 소신을 피력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모두에게 색다른 즐거움으로 남았다고 전한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아이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남겼다.

“강원도 선생님의 장점이기도 해요. 강원도는 큰 학교도 있고



'강원도 선생님은 너야 너가 궁금하다면?'



“이것저것 해보고 도전하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도전을 계기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도 하고요. 동영상 프로젝트만 해도 모르던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됐어요.”

작은 학교도 있어 다양한 장소, 환경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작은 학교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교육 철학을 전하고 싶은 로망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과 어떤 아이들이 만나느냐 아닐까요?”

함께여서 가능했던 소중한 경험

같은 원주 지역에 근무하며 강승철 교사와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고받는 사이인 고광진 평원초 교사도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했다. 사실 강승철 교사에게 참여를 권유한 사람이 바로 그다. 대학원에서 무용 교육을 전공하고, 거의 모든 교과에서 무용을 접목한 수업을 진행할 만큼 무용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고광진 교사는 초등 가정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에 ‘츄츄 서방님의 교실무용’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개발한 콘텐츠와 도구를 소개하기도 한다.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올린 무용이 30여 편 정도 돼요.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손 유희, 레크리에이션 댄스, 학예회 댄스 등이죠. 무용에 유난히 관심이 많고 촬영도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 이번 프로젝트에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아이돌 춤에 대한 부담은 컸지만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근무 지역과 학교가 다르다 보니 촬영 전 약 2주에 걸쳐 안무 영상을 보며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주말에 만나 합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쉽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촬영 날 땀을 비 오듯 쏟으면서도 기본만큼은 최고였다는 그. 좋은 환경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데다 방과 후나 주말이면 강원도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강원도 선생님’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희열 덕에 힘듦도 있었다.

“정말 뜻깊은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도전이 없다면 삶의 재미가 반감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함께했다는 거예요. 힘을 모았기에 멋진 영상 한 편이 완성될 수 있었죠. 편집된 동영상이 공개된 후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교사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됐어요.”

도전이란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

흥 많기로 소문난 김혜은 교사, 색다른 도전을 즐기는 박지우 교사는 춘천 성원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이자 동료 교사인 이들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

“3년째 춘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더 많은 후배들이 강원도로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공감했어요. 첫 발령 때부터 주변 선생님들께 배려와 도움을 받으면서 강원도 교육 환경에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이번 촬영에 우리 반 아이들이 참여하는 교실 컷도 있었는데, 다들 무척 즐거워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경험을 하려는 박지우 교사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비롯해 취미로 연극과 뮤지컬, 북클럽과 리코더 연구회 활동에도 열심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면 김혜은 교사 역시 못지않다. 올해 1학기에는 영어장기심화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경험을 살려 지금은 박지우 교사를 비롯한 6명의 동료 교사와 영어책 읽기 모임을 만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강원도 민요 1인자에게 민요를 배워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대학 시절 기타 동아리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기타 반주에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도전을 계기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도 하고요. 동영상 프로젝트만 해도 모르던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됐어요. 영어장기심화연수도 영어 교육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음은 물론 다시 학생의 위치로 돌아가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김혜은 교사의 이야기에 박지우 교사가 공감하며 “교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발견하는 경험이 미치는 좋은 영향이 분명 있다”고 덧붙여 말한다.

“아이들에게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분명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거라 생각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힘을 주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저부터 실천에 옮길 거예요. 교육 현장에 계신 모든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세상은 그를 참 많은 이름으로 부른다. 파워블로거, 짱아 쌤, 여행작가, 국어선생님, 방송인... 그 많은 종류의 부름 덕분에 장은숙 교사의 시간은 언제나 분주하고 바쁘다. 세상이 부여한 위치에 늘 주어진 몫을 다하기 위해 분초를 쪼개 쓰는 그. 그래서일까. 연휴의 마지막 날, 금쪽 같은 시간을 내 동료인 정경미 교사의 팔짱을 꼭 낀 채 부산 동해선 마지막 종착역인 일광역으로 향하는 그의 얼굴은 행복 그 자체였다.

여행으로 나를 만나다, 세상을 보다

「**짱아
선생**」의
**부산
일광역
주변
나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다

장은숙 교사는 가슴에 작은 열정을 품고 살았더랬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을 커다랗고 무서운 존재였던 아버지 밑에서 모범생 장녀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늘 여기가 아닌, 저기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꿈은 오래도록 그를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장은숙 교사가 교편을 잡은 뒤 여행이라는 테마로 파워블로거가 되고 여행 책자를 펴낸 뒤 여행작가로서 여기저기서 찾는 유명인사(?)가 된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라는 꿈이 빚어낸 결과물일 터였다.

부산 정관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장은숙 교사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으로 참 바쁜 인물이다. 학생들에게 인기 좋은 교사이자 초등학교를 키우는 엄마, 한 남자의 아내, 여행가, 작가로서 제 각각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결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일광역으로 가는 나들이 길은 더욱 특별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교사도 아닌, 오직 인간 장은숙으로서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동료이자 동생, 좋은 친구인 정경미 교사와 함께 처음으로 짧은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10월 9일, 부산 동해선은 사람들로 제법 차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있는 어르신들부터 데이트를 즐기려는 커플들, 아이를 동반한 부모까지 연휴의 한끝을 즐겨보려는 사람들이다.

“제게 이 노선은 지금은 폐선된 동해남부선 여행을 떠올리게 해요. 꽤 오래전에 학생들과 무궁화호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울산 옹기





마을까지 가서 옹기 만들기 체험도 하고 아이들과 기차에서 간식도 먹으면서 동해를 보고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화나 보고 PC방에 가고 싶어 했던 아이들은 툭툭거렸지만 막상 다녀오고 나서는 사방팔방 자랑이 늘어지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던 그 모습들은 지금까지도 장은숙 교사의 마음속에 소중한게 남아있는 금강석이다. 분명 둘만의 오붓한 여행이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학생들과의 추억담이 끼어드는 모습이 꽤 재미있다.

바다에서 만난 문학

덜컹덜컹 느리게 흘러가는 창밖 풍경을 보여주는 기차 대신 스치듯 빠르게 지나가는 전철에 몸을 실었지만 두 교사의 설레는 마음만은 소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50분 여를 달려 중점인 일광역에 도착하자마자 두 교사는 일광해수욕장으

로 향했다. 가을 바다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제법 붐비는 이곳에서 두 교사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들었다. 발가락 사이사이로 몽클몽클 빠져나오는 고운 모래를 즐기고, 밀려오는 작은 파도를 피해 작은 비명을 지르며 웃음을 터뜨리는 그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여고생으로 돌아간 듯 보인다.

“일광해수욕장은 제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해요. 제 두 번째 책인 <교과서 문학기행> 속에서 이곳을 배경으로 한 소설 <갯마을>을 소개했거든요. 소설 속에는 동해안의 ‘H’라는 갯마을로만 묘사되어 있지만, 소설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여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의 작은 어촌입니다.”

장은숙 교사는 둥그런 해안가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오영수 갯마을 문학비’ 앞에서 난계 오영수가 해방 직전 일광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큰 누이의 도움으로 일광면에 임시적으로 와서 근무

를 했다는 것, 이곳 갯마을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 <갯마을>을 발표했다는 이야기 등을 두런두런 들려주었다. “요즘은 점점 사라져 가는 해녀의 모습도 이곳 일광에서는 볼 수 있어요. 거친 파도와 싸우고 힘든 물질을 하면서도 바다가 좋아, 바다를 운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해녀들의 삶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행과 문학이 일체된 시간, 장은숙 교사의 이야기를 동행한 정경미 교사가 소중하게 귀담아듣는다.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정경미 교사에게 평소 아이들과의 체험학습, 여행지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장 교사의 이야기는 아무리 작아도 절대 허투루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할 차례다. 여행을 통해 다져온 장은숙 교사의 내공이 맛집 선정에도 빛을 발한다. 일광은 본래 아구찜이 유명하지만 그가 고른 음식은 아구찜 못지않게 소문난 ‘붕장어’이다. 흔히 아나고라고 불리며, 쫄깃쫄깃 씹는 맛과 감

칠맛을 사랑하는 바다장어가 채 치듯 잘게 썬 회와 고추장 양념을 발라 내온 구이, 탕으로 구성되어 나왔다. 바삭하게 부쳐낸 정구지찌짐, 계피향 가득한 수수부꾸미, 양배추를 채 썰어 콩가루와 초고추장을 올린 곁들이를 포함, 정겨운 부산사투리로 이어지는 두 교사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사들의 행보는 늘 조심스럽다. 그러나 같은 행동을 해도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는 동병상련의 입장은 두 사람의 우정에 남다른 무게와 반짝이는 빛깔을 더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둘의 코드가 잘 맞는다’는 것. 정경미 교사에게 장은숙 교사는 “언제든 무슨 일이든 시원하게 똑딱 해내는 에너지 넘치는 선배”이고 장은숙 교사에게 정경미 교사는 “2살 어리지만 늘 긍정적이고 현명함과 지혜를 갖춘 언니 같은 동생”으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나이는 제가 많지만 결혼과 육아는 제가 후배에



“일광해수욕장은 제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해요. 제 두 번째 책인 <교과서 문학기행> 속에서 이곳을 배경으로 한 소설 <갯마을>을 소개했거든요. 소설 속에는 동해안의 ‘H’라는 갯마을로만 묘사되어 있지만, 소설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여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의 작은 어촌입니다.”



MINI INTERVIEW



정경미 교사

언니와 6년이나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돌아서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이곳저곳을
다녀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 앞
으로 교육자 생활을 더 해야 하는데 오늘을 계기로 교육계의
더욱 든든한 선배이자 좋은 언니를 얻은 느낌이에요. 함께 좋
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작가로서, 교사로서
늘 열정적으로 살고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언니를 롤모델 삼
아 저 역시 함께 더욱 열심히 뛰어나고 싶습니다.



장은숙 교사

교사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저는 '함께했던 경
험'과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까'를 중요하게 생각
하는데 오늘 여행을 통해 정경미 교사와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불어 여행작가로서의 경험이 쌓
일수록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현재 제작 중인 교사 인터넷강
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향후 제주도에 관련된 책과 여
행 에세이를 써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습니다.

요. 초등학생을 키우는 제계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장경미 교사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조언자이자 조력자지요.” 장은숙 교사의 환한 미소에 정경미 교사도 마주 웃는다.

여행의 가치, 삶에서 찾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아홉산숲이다.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정경미 교사의 바람을 흔쾌히 수락한 장은숙 교사의 결단 덕에 뉘엿뉘엿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등지고 서둘러 아홉산숲으로 향한다. 아홉산숲은 남평 문씨의 일파인 미동 문씨 집안에서 9대에 걸쳐 300여 년 동안 관리해 온 숲으로 그 덕분에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참화, 숲에서 땀감을 구하던 시절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산이다.

입장료를 내고 숲에 들어선 순간 탄성이 절로 터졌다. 나무가 터널을 이루는 울창한 숲길, 배양된 버섯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참나무, 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 달고 맛있는 공기까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부자가 된 기분이다. 여기에 저물어가는 태양의 붉은 빛을 받아 화려한 색깔로 물든 소나무까지 덩으로 얻어 보니 “여행은 새로운 세상

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는 장은숙 교사의 말이 비로소 심장까지 파고드는 기분이다.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늘 여행과 체험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장은숙 교사는 어쩌면 교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인지도 모른다. 학생들과 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매 시간이 긴장이고 관리이며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지난한 시간을 반복하면서도 다시 또 학생들과 함께할 경험과 여행을 꿈꾸니 말이다. “저는 사람의 사고나 지식, 생각의 깊이는 경험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는 곧 제가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정경미 교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결국은 다시, 영락없는 교육자로 돌아오는 두 사람이다. 훌가분한 기차 여행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지만 뽀비우스의 띠처럼 종내에는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학생들에 대한 극진한 애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두 교사. “힘들어도 결국은 내가 좋으니 계속하는 거 아니겠냐”며 호탕하게 웃는 그들에게서 홀로하는 여행은 물론,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주는 행복이 진하게 번져 나오고 있었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10줄 내외로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떠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leenj@swadcom.co.kr

선후배의 주요 발자취를 따라가다



일광해수욕장

동해 남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광해수욕장은 수심이 얇아 한여름 가족 피서객이 즐겨 찾는 인기 해수욕장이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소나무로 이루어진 강송정숲이 일품이며, 고려 말 정몽주·이색·이승인이 유람하였다는 삼성대(三聖臺)가 백사장 가운데 솟아 있다. 1965년 김수용 감독의 <갯마을> 촬영지로 유명해졌으며, 매년 7~8월에는 갯마을 축제가 열린다.

-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 문의 기장군청 051-709-4000



오영수 갯마을 문학비

1914년에 태어나 1979년 타계한 소설가 오영수는 서민들의 삶을 따스하게 풀어낸 작가로 손꼽힌다. 그의 대표작은 갯가 청상과부의 삶을 그린 <갯마을>로, 일광해수욕장 북쪽 끝에 있는 이울포에는 그 작품을 기념한 문학비가 서 있다. 이울포는 <갯마을>의 실제 무대로 소설의 배경이 된 느티나무, 느릅나무, 당집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 주소 일광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다리 옆



아홉산숲

아홉산숲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 자락에 위치한 숲으로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산림을 즐길 수 있는 귀한 곳이다. 총 면적이 무려 52만 m²이며, 약 400년의 세월을 온전히 지켜온 사유림으로 소나무, 참나무, 대나무 등이 무성하게 자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미동길 37-1
- 안내 www.ahopsan.com

들어본 적 있나요, 스와질란드?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파견으로 아름다운 작은 왕국 스와질란드의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늘 현지 교사, 학생들과만 지내다 서신으로나마 오랜만에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뵈려니 무척이나 기쁘고, 또 설레기까지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와질란드? 과연 어느 대륙에 있는 나라일까요? 스위스의 외국어 표기인가?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실 것입니다. 잠시 손에 쥐고 계신 휴대폰에서 지도 앱을 열어 아프리카의 남쪽으로 시선을 맞춰주세요. 그리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오른쪽 끝 국경, 모잠비크와의 경계선을 봐주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네, 스와질란드는 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아주 작고 아름다운 왕국입니다.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마 스와질란드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과연 몇 분이나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아프리카에 위치한 스와질란드는 어떠한 나라일까? 왜 왕국이라 부를까? 날씨는 어떨까? 교육이나 생활환경은? TV에서 늘 보던 그런 아프리카의 모습일까?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스와질란드는 2017년 통계로 전체 인구수는 130만 명,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나라로, 왕이 다스리는 입헌군주 왕국입니다. 1인당 GDP는 3,846달러로 우리나라의 2만 9,115달러와 비교하면 경제 및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국어인 시스와티어와 함께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모든 공식 행사와 회의는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들과 소를 모는 목동이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1960~1970년대와 현재가 공존하

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스와질란드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곳 교육에 대해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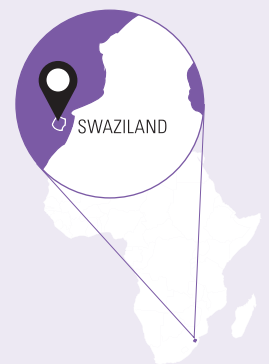
먼저, 스와질란드의 학제는 아래 표와 같이 초등학교 7년, 중·고등학교 5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국에 초등 630개교와 중·고등 265개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답게 모든 학교는 기도, 찬양, 훈화, 알림 등으로 이루어진 아침 조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회가 끝나면 1교시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즉 1교시 마치는 종이 동시에 2교시 시작을 알리는 종인 셈이지요. 대신 4교시와 5교시 사이에 15분의 브레이크타임이 있지만 학생들은 언제 화장실을 가는지, 다음 교시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수업 시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등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디까지를 문화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지금까지도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스와질란드뿐 아니라 여타의 아프리카 학생들은 수학을 어려워하고 계산 능력도 한국 학생들보다 월등히 느리고 떨어집니다. 구구단을 잘 외우지 못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은데, 예를 들면 $4 \times 5 = 20$ 을 우리는 '사오 이십'으로 바로 입밖으로 내뱉지만 여기 학생들은 4를 다섯 번 머릿속으로 생각한 뒤 손가락으로 더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20을 내뱉기 때문에 시간도 지체되고 과정이 길어지니 틀리기도 십상입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버, 식스, 세븐, 에이트, 나인, 텐'의 영어 음절보다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짧은 한 음절로 수를 표현하는 한글의 위대함 덕분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한국 학생들의 계산 능력은 정말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스와질란드	
grade1~7	Primary school
form1~3	High school
form4~5	(secondary)



스와질란드
 전체 인구는 130만명, 1인당 GDP는 3,846달러,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입헌군주 왕국이다. 스와질란드의 모든 공식 행사와 회의는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된다.



학생들의 태도는 한국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 아이들이나 한국 아이들이나 모두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은 10대니까요. 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경제적인 이유, 임신, 가정환경 등으로 학교를 잠시 쉬는 경우가 많고, 유급 제도로 인해 같은 학년임에도 반 친구들의 나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달라도 우리나라 복학생 같은 느낌은 나지 않아 다들 친구처럼 잘 지낸답니다. 또 다른 점은 이곳 학교에는 여전히 체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나뭇가지로 된 회초리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데 어찌나 세계 때리는지,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도 이제 체벌 교육(Corporal Punishment)에서 긍정 훈육(Positive Discipline)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와질란드는 아직 전산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을뿐더러 개인 컴퓨터도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와 문서 작업, 보고서 등은 우리가 예전에 하던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스(NEIS)가 없어 산더미 같은 업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부러우신가요? 대신 매일 숙제 검사를 합니다. 반 평균 50~60명 되는 학생의 숙제 검사로 하루를 다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주당 25~30시간의 수업 시수, 숙제 검사 등 한국 선생님들과는 또 다른 환경이죠.

스와질란드에는 음악과 미술, 체육 교과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활동을 함께하다 보면 흑인 특유의 재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론을 모를 뿐 목소리, 화음, 댄스, 운동신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갖지 못한 그 끼들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매년 6월이면 전국 학교별로 전통춤 대회가 열립니다. 지역 예선을 거쳐 전국 본선 경기가 열릴 정도로 중요하고 열띤 대회입니다.

많은 학교는 이 대회를 위해 대회 당일까지 점심 이후 시간을 할애해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추는 춤과 여자들이 추는 춤이 다르지만 전통 의상을 입고 추는 것은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자들은 기슴을 노출한 채 춤을 추는데, 교실에서 보던 우리 반 여학생이 기슴을 드러낸 채 춤을 추다 저를 보고 인사할 때는 도대체 눈을 어디에다 뒀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있던 엄마가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정류소에서, 마트에서, 어디에서든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상황이면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젖을 물리는 것

이 문화인 스와질란드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지만 한국인인 저에겐 여전히 진땀 나는 상황이지요.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다음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아껴놓겠습니다.

여러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매체가 전해준 것으로 인해 머릿속에 왜곡된 아프리카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이곳에 와서 생활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시사철 무덥기만 하지도 않고, 길거리에 기린이나 코끼리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기아에 허덕이며 생사를 오가는 아기들이 지천에 있거나 흙집에서 지내며 가축들과 같이 먹고 자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개 이들도 우리처럼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틀고 자야 할 정도로 춥습니다. 매체가 그려놓은 아프리카의 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가슴이 뛰지 않으시나요?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뛰는 선생님이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 섞인 두근거림이시죠? 분명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설렘인데 ‘에이, 내가 어떻게?’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느끼실 겁니다. 네, 한국과는 다른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니만큼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늘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이곳에도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로 그 못지않은 부담을 함께 팍! 팍! 드립니다.

‘변화가 목적일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사랑이 목적일 때 저절로 일어난다!’

우리 선생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계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스와질란드에서 11월의 아침에

김성진 드림

김성진

3년 전, 부산 금명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불쑥 아프리카 스와질란드로 떠났다. 그곳 Lobamba National High School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이전 사랑의 씨앗을 점차 거둘 때라고 말한다.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GYEONGJU SOLGEO ART MUSEUM

경주솔거미술관

개성이라는 표현하에 서로 경주하듯 솟은 건물들, 이목을 끌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듯하다. 답답한 도심을 피해 홀연히 떠난 경주로의 여행. 수려한 경관과 고결한 자태는 여전히 변함없는데 한 공간에서 그만 숨이 턱 밀까지 차오르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서양의 근대건축을 받아들인 지도 3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1970~1980년대만 해도 건축계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모더니즘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좇기만 했다. 그러다가 IMF를 전후로 국민의 사고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성향이 반영된 건축물과 자연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을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건축물은 인간의 사고 변화를 그대로 함축해 보여주는 결과물과도 같다. 건축물의 멋진 연출 속에서 인간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와 변화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된다. 자연계에 만연한

이러한 가치 있는 신호에 대해 이스라엘 동물생태학자 아모츠 자하비(Amotz Zahavi) 박사는 일찍이 ‘장애 이론(Handicap Theory)’으로 설명했다. 즉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서 매력이 더욱 발산된다’는 것이다.

경주솔거미술관 역시 이를 배경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천년 고도 경주의 장대하고 아름다운 산하를 고스란히 담아내려는 듯 전시 공간 구축구석 건축물이 숨을 쉬듯 주변 자연경관을 투영해내고 있다. 특히 제3전시실의 통유리 창은 자연을 한 폭의 작품으로 승화함으로써 미술관 건축의 백미로 손꼽힌다. 미술관 밖에는 마치 음양이 조화를 이루듯 경주타워와 중도타워가 서 있다.

통일신라시대 천재 화가 ‘솔거(率居)’에서 착안해 이름 지은 솔거미술관은 전시 작품으로 더욱 주목 받는다. 솔거가 황룡사에 소나무를 그렸더니 새들이 진짜 나무인 줄 착각하고 날아와 부딪쳐 죽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만큼 솔거의 그림은 매우 사실적이고 생명력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주의 화풍을 그대로 전승하면서 자신만의 섬세함과 노련함을 담은 한국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솔거미술관은 개관 이래 꾸준히 전시해오고 있다. 박대성 화백의 기백 넘치는 붓끝 세상은 가히 압도적이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와 필치는 지역 특색을 담아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하다. 이는 곧 솔거미술관의 근간이 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초 예술 전문학교인 경주예술학교의 흔적을 좇아 경주 미술의 뿌리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의 뿌리가 되는 경주 미술인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경주미술의 뿌리와 맥> 전시는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 산하 경주미술사연구회에서 경주 작가들의 미술사적 위상을 조명하고 그 맥을 짚어보고자 기획한 전시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흥익대학교박물관 이애선 학예사는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술이 한 시대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로 한국 미술의 시작점을 한눈에 살



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주솔거미술관이라는 설명이다. 솔거미술관의 도슨트 이해영 씨는 “건물을 보러 왔다가 그림에 빠지거나, 그림을 보러 왔다가 건물에 감동하는 사람도 많다”며, “솔거미술관은 신라 예술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의 미술로 거듭날 요람이 될 것”이라고 소개한다. 천년 고도 경주의 아름다움을 가장 조화롭게 담은 솔거미술관에서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미술을 탐할뿐더러 우리 예술의 근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환은 지역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결합을 통해 다시 도시 재생 건축으로 태어나고 있다.

경주솔거미술관

-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천군동 130)
- ☎ 054-740-3990
- 🌐 www.gjsam.or.kr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가 오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은행'. 2017년 4월 3일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은행과 달리 점포가 없는 은행이 출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출범한 무점포 인터넷 은행은 두 곳으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을 개시한 케이뱅크보다 더 큰 주목을 받으며 사업을 개시했을뿐 아니라 순식간에 시중 은행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카카오뱅크'가 가장 화제다.

친숙한 '카카오'의 이름을 단 은행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하나 꼽으라면,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꼽을 것이다. 어느새 모두에게 친숙해진 카카오의 이름을 달고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넘어서 '스마트폰 전문은행'을 표방한다. 지난 7월 27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100% 스마트폰 뱅킹으로 운영되는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어떤 은행보다도 시장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업 개시 12시간만에 계좌 개설 고객 18만명을 넘어섰고, 영업 둘째 날에는 5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시중 은행 전체에 개설된 비대면 계좌가 약 15만 개임을 고려하면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같이만 다른 은행'을 표방하는 카카오뱅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인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폰인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뱅크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계좌 개설은 앱 실행 후 나오는 창에서 '계좌 개설하기'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 신분증 촬영, 비밀번호 설정, 최종 이용자 확인의 네 단계를 거치면 완료된다.

기존 은행들도 스마트폰 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중 은행의 앱과 카카오뱅크 앱은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대신 여섯 자리의 핀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입금할 수 있다.

B



새로운 트렌드, 은행이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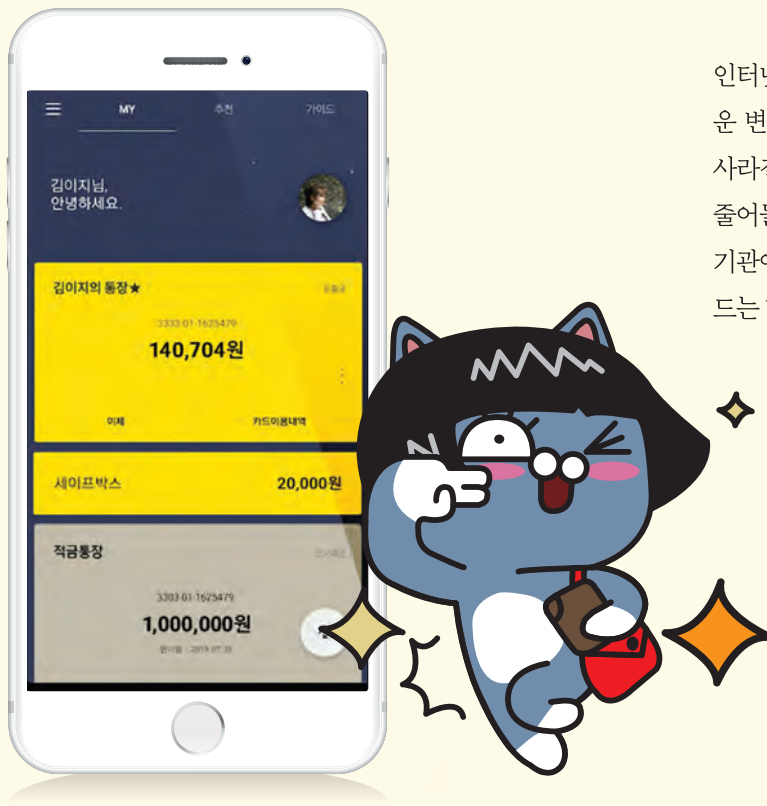
미래의 일로만 여겨지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정말 우리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서서히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가며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무점포 온라인 은행의 등장이 화제다.

수수료는 저렴하고, 금리는 높고

누군가에게 자금을 이체할 때, 카카오뱅크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자금 이체가 가능하다. 1일 1백만원까지 카카오뱅크와 연계된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로 자금을 이체하면 거래 상대방의 카카오톡에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전송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거래가 완료된다. 만약 이체 상대방이 24시간 동안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자동 취소되며, 이용자의 계좌로 자금이 환불된다. 카카오뱅크의 또 다른 강점은 시중 은행에 비해 이체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우선 해외 송금 수수료의 경우 기존 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1백만원을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가 고작 5천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총 11만대가 넘는 전국 ATM에서 무료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ATM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강점, 대출 조회

출범 초기 카카오뱅크가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편리한 대출을 꼽을 수 있다. 까다로운 신용조회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 은행과 달리,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즉시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 대출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금리 면에서는 그다지 우수하지 않지만,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조회 없이 대출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은 카카오뱅크의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 출범 초기 기존 은행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예금 금리와 간편한 대출이었다. 하지만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은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이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IT 서비스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단순 명료한 메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수반한 복잡한 절차가 없는 이체 등의 은행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거기에 저렴한 수수료와 안정적 금리가 더해진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권을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선전으로 은행 서비스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점차 사라질 것이고, 오프라인 지점을 찾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은행권의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

멘토의 부재 시대다. 갈망하고 그리워하다 보니 멘토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과연 본받을 만한 Good Teacher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GSGT에서 그 답을 찾는다. 청소년 인성교육에 집중하며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본다.

인성교육연구회 GSGT

흔들리는 학교, 인성교육에서 해답을 찾다

“선생님은 취미가 뭐예요?”

“나? 세상 바꾸기!”

제자의 질문에 대한 GSGT 정미경 대표의 답이다. 교사가 변해야 아이들이, 학교 문화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GSGT가 시작된 지 어느덧 16년. 10여 명의 동료 교사들로 출발한 모임은 이제 전국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움직임으로까지 성장했다.

GSGT란 ‘Good Students & Good Teachers’의 줄임말이다. 달리 말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의 모임’이다. 인터넷이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2000년도 초, 학교 내에서 아이들 놀이와 학교폭력 문제들이 급부상함에 따라 인성교육 부재의 문제점을 인식한 데서 GSGT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학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방비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지난 2001년, GSGT 주최로 끼와 에너지를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작은 음악회를 기획했어요. 이름하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종이 땡땡땡’ 공연이었죠.”

이듬해 여름부터 2007년 겨울까지는 총 11회에 걸쳐 사제동행 역사탐방도 함께 진행했다. 선생님들이 직접 기획하고 공부하고 연구해 진행된 역사탐방은 ‘나를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자’는 GSGT의 슬로건과도 연결되는데, 보다 확대된 ‘나의 뿌리인 민족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때 나에 대한 자존감도 비로소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낮 시간에는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며 우리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저녁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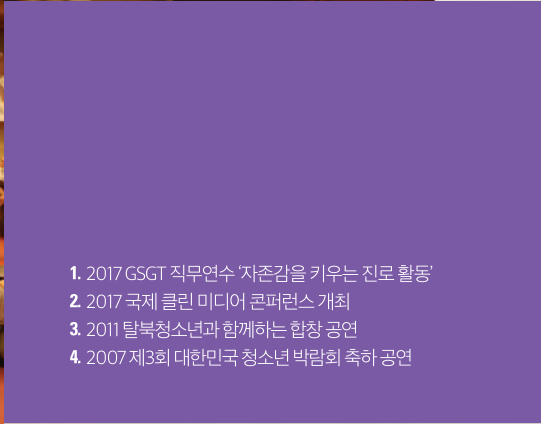


GSGT

Good Students & Good Teachers



3



- 1. 2017 GSGT 직무원수 '자존감을 키우는 진로 활동'
- 2. 2017 국제 클린 미디어 콘퍼런스 개최
- 3. 2011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합창 공연
- 4. 2007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축하 공연



4



행한 사제동행 역사탐방은 2007년 청소년위원회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학생이 이끌고, 선생님이 밀어주는 문화 운동

선생님이 주체가 됐던 GSGT의 청소년 문화운동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학생 주도로 변화된다. 초·중·고등학생 20여 명으로 이루어진 기획단을 구성해 ‘바꾸어야 할 청소년 문화’ 무엇인지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 도출된 ‘욕설, 게임, 음란물’ 세 가지를 주제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캠페인’이다. 비속어 사용과 악성 댓글을 금지하자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아이들이 직접 구호를 외쳤다. 변화는 분명했다. 당장 눈에 띄지 않았을 뿐, 캠페인에 참여한 아이들의 가치관은 분명 바로르고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캠페인에 자주 참여했던 반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즈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언어습관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해 환경이 바뀌면 비속어를 끊어야겠다고 결심 했었다고요. 고운 말을 쓰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평소에는 욕을 하는 스스로가 창피했다는 거예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갑자기 변하는 게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늦더라도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음란물을 접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어른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1



2



3



1. 2008 바른말 고운말 쓰기 캠페인 진행 (MBC, SBS, KBS, EBS 방영)
2. 2017 광화문 1번가에서 클린 미디어 정책법안 발의
3. 2014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를 위한 GS 아카데미

깨끗한 미디어 환경을 위한 전 방위적 활동

과거에 비해 문화적 지평이 넓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불거지는 문제점도 많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 수단인 미디어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GSGT가 지난 2010년부터 음란물 추방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음란물을 접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치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옳고 그름의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어린 나이부터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어른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미경 대표는 어렸을 때 보고 들은 모든 지식과 경험이 총체적으로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하며,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2010년 8월, 인터넷 상의 음란성 광고를 없애는 규제 법안을 만들고자 청소년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했고, 1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법안을 청원해 현재 3차 청원까지 진행을 시켰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클린미디어 송을 창작하고, 매년 전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급 경영을 위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진행하며, 5년 전부터는 인성교육 교재 <맑은샘>도 발간하고 있다.

누군가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도, 혹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회의적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변화이기에 이 순간도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GSGT. ‘Good’ Teacher를 넘어 ‘Great’ Teacher로, 이전보다 나은 세상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INTERVIEW



인성교육연구회 GSGT
정미경 대표

Q. 대표님이 생각하는 Good Teacher란?

A.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개념부터 같이 고민하고 행동으로 본이 되어 실천하는 교사,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생님이 바로 Good Teacher라고 생각한다.

Q. GSGT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A. 선생님이나 교사라는 단어를 지양하고, 스승이라는 단어를 감히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다. 우리가 현재 스승이라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면서 목표로 추구해야 할 목표지점이기 때문이다. 본이 될 수 있는 스승 말이다.

Q. 앞으로 GSGT를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A. 우리의 모든 활동이 인성교육의 일환이라고 본다. 아이들 인성을 바로잡으려고 보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더라. 좋은 생각을 가져야 모든 것이 좋은 삶의 좋은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좋은 생각은 보고 듣는 것에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교재를 발간하면서 인식을 확산시켜 갈 계획이다.

쌀쌀해진 날씨, 이번 주말에는 뭐할까?

바람이 점점 쌀쌀해져간다. 거리나 공원에서 낭만을 즐기기에는 어느새 추워진 날씨. 그래도 주말만큼은 특별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 추위에 떨지 않고 아늑한 공간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5곳을 소개한다.



책으로 둘러싸인 공원



이태원 거리를 거닐다 추위에 못 이겨 블루스퀘어에 들어선다. 2층을 살짝 살펴보자 슬며시 책들이 보인다. 잠시 몸도 녹일 겸, 감성 충전도 할 겸 2층으로 올라간다. 그 순간 수천 권의 책이 꽃힌 높이 24m의 서가를 보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북파크'는 그 이름처럼 책으로 이뤄진 공원이다. 과학과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세워진 카오스재단이 운영하는 이곳은 '책 읽는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독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50여 개 테이블과 200여 개 좌석,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계단에 아늑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골방까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에 각종 그림을 전시하는 약 264m² 규모의 갤러리, 책과 함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최대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연장과 세미나실도 마련되어 있다.



옛 서울역에 펼쳐진 문화 공간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이자 교통과 교류의 관문이었던 옛 서울역을 복원하여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예술이 창작되고 있다. 붉은 벽돌이 특징인 르네상스 양식의 옛 서울역사는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로 1층에는 대합실과 귀빈실, 2층에는 이발소와 레스토랑 '그릴'이 있고, 지하는 사무실로 활용됐었다. 하지만 복원 이후 1층 중앙 홀은 공연·전시·이벤트·카페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최고의 양식당으로 유명했던 2층 레스토랑 그릴은 공연·전시·세미나·회의 등을 위한 다목적 홀로 변신했다. 또 2층의 나머지 공간은 아카이브·기획전시실·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다. 옛 건물이 전해주는 클래식한 공간에 현대적인 예술을 펼쳐 보이며 관람객에게 언제나 새로운 맛을 선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신진 아티스트와의
소통 공간



홍대입구역 1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이색적인 카페다. 지하 1층에 위치하며, 모던한 인테리어의 넓은 공간 속에서 분위기 잡고 커피 한잔 마시기에 더없이 좋다. 그러나 공상온도는 단순히 분위기 좋은 카페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홍대의 젊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신진 아티스트들은 이곳을 마치 공방처럼 사용하며, 아트마켓과 갤러리가 마련되어 있어 곳곳에서 아티스트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전시회가 딱딱하게만 느껴졌다면 이곳을 꼭 한번 찾아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티스트의 색이 듬뿍 묻어나는 실험적인 전시 덕분에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금세 사라질 것이다. 또 주말에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니 하루를 예술과 함께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화의 열매가
생글 맺히는 곳



22년간 노원구에 자리했던 노원문고가 주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만든 복합 문화 플랫폼이다. '더불어 함께 숲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약 2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40석 규모의 작지만 알찬 예술 영화관 '시티라이트', 젊고 참신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약 20평 규모의 전시 공간 '여행하는 나무', 주제별로 엄선한 책을 선보이는 큐레이션 서가 '293호 열차 C칸', 콘서트를 즐기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인상과 풍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팻캐스트를 녹음하고 방송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6~20명이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 룸도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보는 것은 어떨까?



신림에 자리한
단편영화관

신림동 고시촌 상가 단지 지하에 자리하고 있는 극장이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극장을 상상하면 오산이다. 이곳은 오로지 단편영화만 상영하는 작지만 매력 있는 신개념 극장인 것. 올해 1월에 문을 열었을 때, 처음에는 DVD방으로 착각하고 오는 손님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입맛 다양한 영화 애호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점차 단편영화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곳 운영자는 영화 보는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이 충분한 휴식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체휴강'이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한다. 운영철학에 맞게 단 한 명이라도 입장하면 영화를 상영하고, 일단 영화가 시작되면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들여보내지 않는다. 덕분에 사람이 뺄뺄하게 자리하는 대형 극장과 달리 가족 혹은 연인과 오붓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영화 관람료는 편당 3천원. 단편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자체휴강 시네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로맨틱함이 묻어난다.





Seattle

커피 향 가득한 거리를 산책하다

미국 - 시애틀



시애틀은 커피의 도시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이곳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시애틀 외곽에 자리한 캐피톨힐은 인디 카페가 번성하고 있는 만큼 개성 강한 로스팅으로 커피 마니아들의 발걸음을 불러들이고 있다. 영화 <만추>의 무대였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무대였던 유니언 레이크도 가을에 어울리는 여행지다.

먼저 시애틀 추장에 대해 이야기하자. 시애틀은 워싱턴주가 되기 이전 이 지역 원주민인 인디언 추장의 이름이기도 하다. 1852년 미국 정부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지역에 거주하던 인디언 추장에게 땅을 팔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추장은 “땅은 신성한 것, 하늘과 마찬가지로 팔고 살 수 없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의 것”이라는 편지를 보낸다. 당시 미국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이 편지에 감동해 그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시애틀에는 ‘조정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도시 시애틀. 시애틀은 조화로운 도시다. 도시와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어울려 있고 사람과 사람이 다정하게 어울려 산다. 단 하루만 이 도시를 여행해보면 시애틀이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도시인지 느낄 수 있다.



미국 커피의 중심

시애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피 향이 여행자를 반긴다. 시애틀은 미국에서 커피로 가장 유명한 도시. 한 집 건너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항공·IT 기술 자등 고급 인력이 많아 커피 소비량이 막대하다. 시애틀은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문을 연 도시이기도 하다. 1971년 시애틀의 웨스턴 애버뉴에 처음 문을 연 스타벅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커피 문화를 만들고 있던 피츠 커피(Peet's Coffee)에 영향을 받아, 싸구려 아메리카노를 밀어내기 위해 컷발을 내디딘 것이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에 자리한 원조 매장은 1977년 자리를 옮겼으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가슴을 드러낸 갈색 인어 로고를 달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매장 규모는 66m² 남짓으로 작다. 하지만 원조의 맛을 찾아온 전 세계 관광객이 가게 밖까지 줄을 선다. 매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린다. 오전 9시가 넘어 찾아갔다면 적어도 20분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다지 지루하지는 않다. 스타벅스 1호점 앞은 거리 악사의 명당으로, 하루에 20

명 남짓한 악사들이 돌아가며 연주한다. 이들의 활기찬 연주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자기 차례가 돌아온다.

시애틀 커피의 진수는 스타벅스가 아닌 캐피톨 힐(Capitol Hill)에서 느낄 수 있다. 이곳 사람들이 시애틀을 커피의 도시라 부르는 진짜 이유는 이곳에 자리한 수많은 독립 카페들 덕분이다. 독립 카페는 농장 단위로 원두를 구매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에 밀착해 다양한 개성을 만들어내는 로스터리 카페를 말한다. 이 카페들은 직접 해외 유명 커피 산지에서 농장 단위로 원두를 구매해 독특한 커피를 재생산해 공급한다. 캐피톨 힐은 흥대 거리와 비슷한 분위기다. 예술가들의 거리공연을 보고 있다면 자유분방한 캐피톨 힐의 여유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다.





- 1.2 시애틀은 한 집 건너 카페가 있을 만큼 커피 향이 여행자를 반긴다.
- 3. 시애틀의 랜드마크 바로 옆에 있는 유리 조형의 세계적인 거장 데일 치홀리의 전시관에서 만난 작품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시애틀을 찾은 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이다. 시애틀의 랜드마크로, 196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했던 시애틀 센터에 자리 하는 높이 약 185m의 전망대다. 이곳에 서면 시애틀 시내는 물론 푸른 태평양과 유니언 레이크(Union Lake), 흰 눈이 덮인 해발 4,392m의 레이니어 산봉이 한눈에 보인다.



영화 <만추>의 무대였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무대였던
 유니언 레이크도 가을에 어울리는 여행지다.

스페이스 니들 옆에는 유리 조형의 세계적인 거장 데일 치홀리(Dale Chihuly)의 전시관이 있다. 미국 최초의 무형문화재인 그의 작품은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주요 도시에 있는 200개 이상의 유명 박물관과 정원에 전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연 적이 있다. EMP박물관 옆에 자리한 치홀리 가든&글라스 전시관에서 그의 유리 조형물과 그림을 만나 볼수 있으니 시애틀을 방문한다면 그의 대표작인 유리 공예 시리즈와 개인 컬렉션은 빼놓지 말고 감상해보길. 전시관 밖에 자리한 높이 13m, 넓이 418m²의 글라스 하우스에서도 웅장하고 화려한 그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치홀리 가든&글라스 가까이에 자리한 EMP박물관(Experience Music Project Museum)은 록 마니아 사이에 성지라 불린다.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의 고향이 시애틀이기 때문. 1942년 시애틀에서 태어난 그는 1970년 영국 런던에서 만 27세의 나이에 요절한다. 주요 무대 활동 4년, 스튜디오 음반 3장 발매. 지미 헨드릭스의 약력은 단출하지만 그는 영원한 전설로 남아 있다.

EMP박물관 가까이에는ライド 덕을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다.ライド 덕은 시애틀에서만 탈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로, 오리 모양으로 생긴 수륙 양용 버스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장갑차로 만들어졌지만 쓸모없어지면서 관광버스로 변신했다. 시내를 빠져 나온ライド 덕은 유니언 레이크로 풍덩 빠져든다. 차에서 배로 변신하는 것. 유니언 레이크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톰 행크스의 보트 하우스가 있던 곳이다. 톰 행크스는 밤이면 쓸쓸히 베란다로 나가 호수를 바라보곤 했다. 유니언 레이크에는 아직도 선상 가옥이 있는데, 이는 1890년대 어부와 선원들이 처음 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세금을 아끼고 값싼 주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 2,000가구까지 늘어났지만 지금은 500개 정도가 남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어디를 가나 시장 구경은 빼놓을 수 없다. 시애틀에서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다. 시내 1번가라 할 수 있는 퍼스트 애버뉴와 파이커 스트리트 사이 엘리엇만을 끼고 위치해 있다. 금방 잡아 올린 신선한 생선과 농부들이 직접 재배해 가져온 과일과 채소, 향기를 듬뿍 머금은 꽃, 직접 만들어 온 미술품과 공예품 등이 가득하다.

시장은 1907년 문을 열었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최근 영화 <만추>에서 주인공들이 누빈 곳이다. 원래 어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종합시장으로 변모해 시애틀 시민들도 자주 찾는다. 80여 년 전 세워진 네온사인 시계는 지금도 멀리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푸드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45달러를 내면, 해설사를 따라 주요 상점을 돌며 전통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100년 묵은 사연과 함께하면 그 맛이 더한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내려오면 워터프런트로 갈 수 있다. 시애틀 서쪽에 있는 잔잔한 바닷가 워터프런트는 엘리엇만이 인접한 곳으로 부두에서는 관광 유람선이 출발한다.



1. EMP박물관에선 미국 기타리스트 중 최고로 손꼽히는 지미 헨드릭스의 음반을 만날 수 있다.
2. 박물관 옆에 시애틀에서만 탈 수 있는 수륙 양용 버스,ライド 덕이 있다.
- 3, 4. 여행자들 사이 가장 인기 있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원래 어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종합시장으로 변모했다.
5. 시애틀 시내와 푸른 태평양이 한눈에 보인다.



3



4

여행 정보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직항을 이용하면 10시간 15분 정도 걸린다. 델타항공을 이용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환승해도 된다. 시애틀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다운타운이 있다. 시애틀 시티패스(citypass.com)를 이용하면 스페이스 니들, EMP박물관, 항공박물관 등 시애틀 대표 관광지 여섯 곳을 45% 할인된 가격에 둘러볼 수 있다.
 📞 시애틀 관광청 한국사무소 02-775-3232



5



광주제일고등학교 주변 먹거리

김현수
교사가
추천하는

올해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인기몰이에 힘입어 광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 좋은 추억 만드는데 광주의 5味도 빠트리지 말자.



① 송정 떡갈비

광주 송정역 부근 광산구청 앞을 중심으로 향토 떡갈비 전문점이 모여 있는데, 갈빗살에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갈아 넣고 채소와 갖은 양념을 섞은 뒤 둥글넓적하게 빚어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달콤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이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떡갈비가 나오기 전 맛볼 수 있는, 돼지 뼈를 푹 고아 만든 국물이다. 파를 송송 썰어 넣어 맛이 더욱 시원하고 담백한 뺏국의 뼈를 손으로 잡고 뜯어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광주의 5미 (味)

광주를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전라도식 음식 문화다. 광주 5미로는 광주 한정식, 송정 떡갈비, 유동 오리탕, 무등산보리밥, 광주김치를 꼽을 수 있다.

② 유동 오리탕

광주 북구 신안동에 오리 요리 거리를 중심으로 10여 곳이 모여 있다. 오리탕은 들깨가루를 섞은 초장에 오리고기와 살짝 데친 미나리를 함께 찍어 먹으면 개운하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별미 요리로, 보양식으로도 으뜸이다. 영산강 변에서 키운 미나리의 짙은 향과 잘 우려낸 국물이 유동 오리탕의 진미.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휴업이다.



③ 무등산 보리밥

밥 위에 계절에 따라 바뀌는 채소와 콩나물, 시금치, 부추, 무생채, 버섯볶음, 고사리 등 15~20가지 넘는 신선한 나물을 올린 뒤 얼큰한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벼 먹는 참살이 메뉴다. 무등산 등반 후 보리밥에 곁들여 먹는 동동주 또한 별미다.

④ 광주 한정식

10여 가지 젓갈과 나물, 김치 등 남도의 풍성함을 담았다. 남도의 맛과 멋, 인심을 집약해놓은 상차림으로 산과 들, 인근 바다에서 나는 모든 먹거리가 한상 가득 모여 있다.

⑤ 광주 김치

광주 김치는 젓갈과 고춧가루 등 각종 양념을 듬뿍 넣어 맛이 깊고 매콤한 남도식 김치를 일컫는 것으로, 국내외에 광주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김치 산업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남로 한정식

A 일송정

과거 한옥을 음식점으로 꾸민 주방에서 한상을 만들어 통째로 내어 준다. 남도 음식의 정수를 맛볼 수 있음에도 가격 대비 상다리가 휘어진다. 해산물과 육고기를 중심으로 장어구이, 조기구이 등과 전라도식 육회, 제육복음, 돼지족찜, 삶은 돼지고기, 생울, 볶은 은행, 연근조림, 도라지무침 등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4인분 기준 8만원, 1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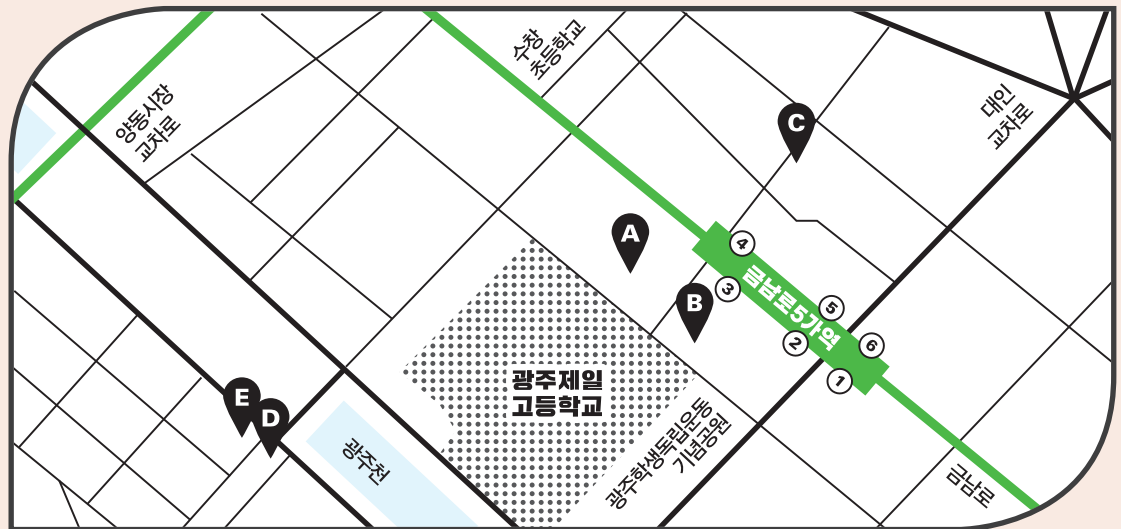


B 수라 한정식

광주제일고 정문과 교보생명 사이 골목에 위치하며, 계절에 따라 음식이 조금씩 바뀐다. 주문하면 가장 먼저 죽이 나오고 김과 찰밥, 잡채와 문어, 소리와 멍게, 생선회, 생고기, 키조개 관자, 무쌈, 꼬막, 무화과·밤·대추조림, 전, 맑은 조개탕, 낙지탕탕이, 탕수육, 버섯구이, 고구마튀김, 홍어삼합, 오리 로스, 민물 새우 무조림, 홍어찜, 코다리찜, 생선찜, 물만두, 굴비, 돼지고기 애호박찌개, 도토리무침, 다양한 밑반찬, 후식으로 수정과와 계절 과일이 나온다. 가격은 점심특선(평일 점심만 가능) 1만7천원, 매화정식 2만5천원, 국화정식 3만5천원이다.

C 유명회관

생고기와 꽃등심을 전문으로 취급하며, 생고기를 주문하면 사장님이 직접 테이블에서 썰어 준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토하젓과 홍어무침이 맛있고, 육회비빔밥과 함께 먹는 된장찌개 맛이 일품이다. 한우생고기 1인분(180g)에 2만3천원, 한우안창살 1인분(170g) 3만3천원, 한우꽃등심 1인분(170g) 3만3천원, 특생비빔밥 1만1천원이다.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독자 여러분이 자랑하고픈 곳이 있으신가요? <The-K 매거진>에 자신이 근무하는 곳, 살고 있는 곳 주변의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숨은 맛집, 가고픈 카페, 그윽한 풍경, 떠들썩한 유흥지, 머물고픈 공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생활, 연락처, 추천 장소와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께 <The-K 매거진>이 원고 의뢰를 연락드립니다. 원고 게재 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leemj@swadcom.co.kr

양동시장 통닭집

40여 년간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경쟁과 상생의 라이벌 통닭집으로, 튀긴 닭발과 닭똥집은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을 만큼 넉넉히 준다.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이 많아 20~30분간 줄을 서는 것은 기본이다.

D 양동통닭

1970년 처음 문을 연 양동통닭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으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 맛있는 치킨 집으로 선정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E 수일통닭

1972년 처음 시작한 수일통닭은 생닭을 자체 브랜드화하여 한 마리씩 포장해 공급하고 있으며, 바로 튀겨 찐듯한 육질과 바삭한 튀김 맛이 일품이다.

The-K와 함께 떠나보는 11월 문화가 있는 날



가장 위대한 비르투오소의
빛나는 70년

이차크 펄만 리사이틀

그를 두고 <뉴욕 타임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극찬을 했으며, <LA 타임스>는 “타고난 휴머니스트이며, 그의 재치는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덧붙였다. 부인할 수 없는 바이올린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이 11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찾는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전해주는 따뜻하고 풍부한 음악을 선사한다.

- 🕒 **일시** 11월 12일(일) 오후 5시
-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 **관람료** R석 18만원 / S석 14만원 / A석 10만원 / B석 6만원
- 🎵 **프로그램**
 -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론도, b단조, D 895 Op. 70
 - 슈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 Eb장조, Op.18
 -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L 140*드뷔시 이후의 곡들은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연주됩니다.
- ☎ **문의** 1577-5266

벨칸토 소프라노의 새로운 전설

디아나 담라우 첫 내한 공연

현존하는 이 시대 최고의 소프라노로 평가받는 디아나 담라우가 첫 내한 공연을 펼친다. 신이 내린 화려한 음색을 자랑하는 그녀는 이번 공연에서 세계 정상의 베이스 바리톤 니콜라 테스테와 함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명 오페라 작곡가인 베르디, 벨리니, 로시니 등의 아리아와 중창으로 꾸밀 예정이다. 파벨 발레프 지휘,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최고의 무대가 기대되는 이번 공연은 그녀의 공연을 기다려온 많은 팬에게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 🕒 **일시** 11월 21일(화) 오후 8시
-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 **관람료** R석 27만원 / S석 22만원 / A석 17만원 / B석 11만원 / C석 7만원
- 🎵 **프로그램**
 - Una Voce Poco Fa
 - Ah! Je Veux Vivre
 - O Quante Volte 外
- ☎ **문의** 02-6205-3402



천재의 공간

다빈치 얼라이브



전 세계를 감동시킨 <다빈치 얼라이브>전이 용산전쟁기념관을 찾았다. 천재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의 천재성은 이 한 공간에서 거대한 스케일로 완벽하게 구현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관람객에게 다가온다. 전시는 총 세 파트로 구성, 첫 번째 공간 '르네상스, 다빈치의 세계'에서는 그의 다양한 발명품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볼 수 있다. 두 번째 공간 '살아있는 다빈치를 만나다'에서는 다빈치의 세계, 과학, 예술을 담은 3,000여 개의 디지털 이미지를 컨버전스 아트로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간인 '신비한 미소, 모나리자의 비밀이 열린다'에서는 모나리자 원화의 수수께끼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 📅 **일시** 2017년 11월 4일(토)~2018년 3월 4일(일)
오전 9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관)
- 📍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 💰 **관람료** 성인 1만5천원 / 청소년 1만3천원 / 어린이 1만1천원
- 📋 **전시 구성**
 - Section 1. 르네상스, 다빈치의 세계
 - Section 2. 살아있는 다빈치를 만나다
 - Section 3. 신비한 미소, 모나리자의 비밀이 열린다
- ☎ **문의** 1577-3363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 명품전

포이 사랑한 보물

2017년 가을, 유럽의 궁전이 왕의 보물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섰다. 주인공은 작센의 선제후이자 폴란드의 강건왕, '아우구스투스(1670~1733)'. 그가 수집한 작품과 당대 최고의 장인이 제작한 귀금속 공예품, 유럽 최초로 발명한 마이젠 도자기와 중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도자기 총 130점이 18세기 궁전의 시공간 안에서 펼쳐진다. 실제 유럽의 궁전 안을 거니는 듯한 감흥 속에서 관람객은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왕실 예술품을 보며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 **일시** 9월 19일(화)~11월 26일(일)
월·화·목·금요일(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요일(오전 10시~오후 9시)
일·공휴일(오전 10시~오후 7시)
-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 💰 **관람료** 성인 9천원 / 중·고·대학생 8천원
- 📋 **전시 구성**
 - 제1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 제2부 그린볼트-왕이 만든 보물의 방
 - 제3부 도자기 궁전-미완의 꿈
- ☎ **문의** 1688-0361



EXHIBITION

연말, 저금리 극복을 위한 세테크 전략



2017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곧 2018년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다. 손으로 잡고 쉬어 가게 했으면 좋으련만 흘러가는 세월이 못내 이루지 못한 아쉬움들과 뒤엉켜 야속한 마음뿐이다. 그렇다고 마냥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세금, 연말정산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재테크 방법으로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면 된다.

세금 우대·혜택 적극적으로 활용

미국은 호전적인 경제지표에 힘입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보이지 않아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만큼 1년 넘게 1.25%로 동결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저금리 시기에는 세금 부문에서 우대나 혜택을 받는 쪽으로 재테크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이에 세테크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자.

1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라

먼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정도로 금융 전문가들의 적극적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1인당 한도는 3천만원까지로 특별히 가입 제한 자격은 없다.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주식 배당과 채권매매에 따른 이자소득 15.4%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다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고, 가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다. 단, 연봉 5천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연간 3천5백만원 이하라면 3년이다. 소득의 2백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백만원 초과분부터 9%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며,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백50만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 은행 예금으로 4백50만원의 수익이 난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면 69만3천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의 경우 2백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나머지 2백50만원에 대한 세율 9.9%만 적용해 24만7천5백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럼에도 ISA의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자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4백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입 기간은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중도 인출을 1년에 30%까지 허용하고,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 자격 또한 은퇴 직장인, 주부, 청년으로 확대하고 가입 기한은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이 저축성보험이다. 10년 이상 납부 시 이자소득세 면제는 물론, 이자소득 자체가 분리과세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장기적인 종잣돈 마련 계획이나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경우 가입하여 활용하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단점으로 10년 이내 해지 시 사업비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는 각오해야 한다. 교직원의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활용하면 높은 이자율과 저렴한 대여 제도, 복지부조금 제공 등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파트나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재산세율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공동 명의의 경우 12억원으로 높아진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6~40%의 누진세를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또한 주택 가격을 반으로 낮추게 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잔금을 치르고 나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 해당 지분만큼 배우자에게 양도되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금융 자산도 가족 간 적절하게 분산해두자. 가족 중 한 사람이 금융 자산을 독점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2

직장인의 연말정산 플랜

직장인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준비하면 되지만, 조금 달라진 부분은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세 부담 증가와 신혼부부, 학부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강화다.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었고,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부부의 경우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백만원의 세

금을 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되었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의 출산 세액공제가 2016년부터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70만원으로 올랐다. 체험학습비의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이며, 첫째와 둘째 아이 각각 30만원씩 체험학습비를 지출했다면 총 60만원에 대해 1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9만원의 소득세액이 환급된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 정책이지만 해마다 관련 금융 상품이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2015년 12월로 판매가 종료되는 등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상품 중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자칫 연금보험과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운데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납입 시 15.4%의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연 1천8백만원까지 납부 가능한 세액공제 상품이다. 1년에 4백만원 한도에서 연봉 5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15%의 60만원, 그 이상 고소득자라면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 액수에 차이가 있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동일하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종합청약저축 또한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다. 일반 적금보다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될뿐더러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필수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연 2백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다른 사람보다 적게 환급받아 속상해하거나 많이 돌려받았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많이 쓰면 많이 받고 적게 쓰면 적게 받기 때문이다. 실수나 무지로 정산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게 환급 받은 것에 감사하자. 그만큼 수입 대비 지출이 적었고,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했으리라.

최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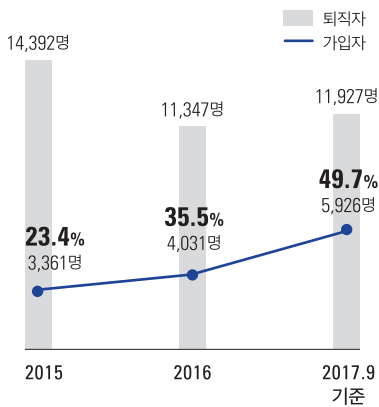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가로 KBS <이침미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경기도지사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풍요로운 노후 위한 고이율·저과세 연금형 상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추이



수명 연장으로 점점 길어져 가는 은퇴 후 삶.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강과 함께 넉넉한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노후’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시중의 다양한 연금형 상품에 눈길이 가지만, 내게 꼭 맞는 상품을 찾아내기란 마음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지도 모른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안정성과 높은 이율’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흔치 않는 금융상품으로, 2015년 출시 이후 만 2년만인 올해 3월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해 퇴직교원 사이 필수 가입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9월 기준 누적 가입자 1만 2,224명으로, 누적 가입액은 9,835억 6,700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매력적인 4가지 이유

(2017. 1월말 기준)

1 낮은 이자소득세

0~3.46%
저율과세

VS

15.4%
시중 정기예금

2 최고의 안전성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
「원금 보장 확실」

3 수수료 없음

중도 해약 수수료
원금 운용 수수료
기타 모집 수수료 등

합계 0원

4 높은 실수령액

최고 1,14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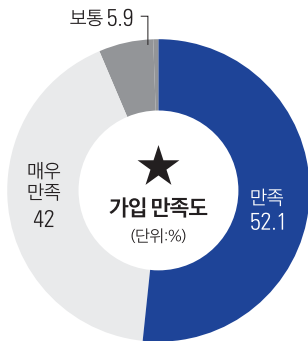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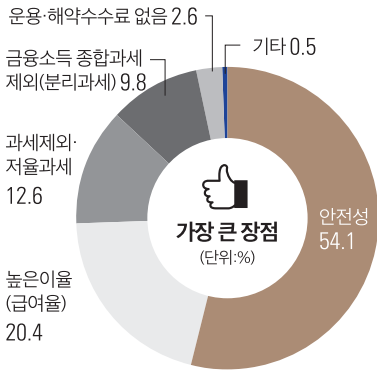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1억원 일시 납입시 10년간 연 평균 수령액)

VS

1,040만원
시중 즉시연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회원 설문조사**

인원 : 1789명 / 일시 : 2017년 5월



재직 중 모은 노후자금 연금 방식으로 수령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납입한 장기저축급여를 퇴직 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노후 대비 상품이다. 일정 수입이 없는 은퇴 후에는 매월 일정액 내에서 노후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측면에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대신 연금방식으로 분할해 받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연금 형식으로 오랜 기간 퇴직금을 나눠 받으려면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높은 안정성을 보장한다.

연복리 2.8% 고이율, 0~3.46% 저율과세

높은 이율 역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장점이다. 2017년 10월 기준 연복리 2.8%로 시중 은행 상품 중 이율이 높은 상품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또 0~3.46%로 저율과세되기 때문에 회원의 실수령액을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될 뿐 아니라, 중도해지 수수료와 자산운용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없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퇴직 시 퇴직급여금 한도 내 단 1회 가입 가능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점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금액 한도 내에서 단 1회만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경우에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퇴직급여금을 수령하고 나면 가입할 수 없다. 이에,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분할급여금 가입액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공제회 전국 시·도지부, 서울 여의도 본부 고객센터 실을 내방하거나 우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 할 수 있다. 가입액은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주기는 월 1회 또는 연 1회 중 택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첫 급여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최초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노후자금 운용 위한 또 다른 상품 '퇴직생활급여'

한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생활급여와 함께 가입해 활용하면 더욱 유용하다. 퇴직생활급여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달리 시중 금융·연금기관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부가금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부분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상품종류는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이지만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이 있다.

공제회 회원콜센터
☎ 1577-3400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더 알아보기

품격 높은 실버타운 ‘The-K서드에이지’

100세 시대가 머지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곧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 그렇기에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건강관리는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바탕은 건강 공동체 구축으로 이를 수 있다.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은 고품격 실버타운 The-K서드에이지는 그런 점에서 ‘제3의 인생’을 여는 최상의 복지 시스템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청정지역에 자리 잡은 최고의 입지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에서 지척인 경남 창녕군 고압면. 이곳은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청정 지역이니만큼 주변은 온통 짙은 녹음이 드리워져 있다. 병풍처럼 두른 화왕산을 시작으로 피곤한 몸을 달래줄 부곡온천, 국내 최대 원시 자연 습지인 우포늪을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대구(경북권)와 부산(경남권)을 1시간 이내에 두루 아우를 수 있음은 물론 서울까지 불과 3시간 거리여서 그야말로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할 만하다. 이곳에 The-K서드에이지가 있다.

The-K서드에이지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퇴직한 교직원을 비롯한 시니어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설립한 품격 높은 실버타운이다. 타 실버타운에 비해 입주생활비용이 50% 수준으로 낮아 입주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주거·편의시설을 갖춰 The-K서드에이지는 교육 가족 사이에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 지난해에는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2014~2016년 3년 연속으로 실버타운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6 소비자의 선택’ 시상식에서 실버타운 부문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The-K서드에이지

특급 호텔식 첨단 유료 양로 시설인 주거동 222세대(30·40·50평형)와 전문 요양시설을 갖춘 The-K서드에이지는 입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배려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 것은 물론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됐다. 특히 각 방의 천장에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해 객실 안의 입주자가 장시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경우 간호팀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간호팀은 정기적으로 세대 방문을 하며 입주민들의 혈압, 혈당 등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The-K서드에이지의 발 빠른 대처법도 주목된다. 평소 인근 병원과 긴밀한 연락망을 유지함으로써 응급 상황 발생 시 30분 내에 병원 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도 지원 중이다. 일주일에 한 번 생활도우미가 방문해 거실 청소와 부피가 큰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하고, 매끼 전문 영양사가 색다르게 준비한 건강 식단도 제공한다.

이는 모두 The-K서드에이지가 추구하는 건강 공동체 가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The-K서드에이지가 추구하는 가





치 그대로 '청춘보다 아름답게, 활기차게,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24시간이 즐거운 입주 생활

현재 입주 중인 회원은 6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하지만, 여타 실버타운과 달리 70대가 대부분을 이루는 등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벗모임회', '색소폰', '오카리나' 동호회와 '합창단'은 각종 지역 행사의 단골 초대 손님이며,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실버댄스' 동호회는 지역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서드에이지는 매달 전문강사를 초빙해 탁구·요가·스마트폰·노래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이 듣고 싶은 강좌를 요청하면 수요 조사를 통해 시범강좌를 먼저 마련하고, 수강생이 꾸준히 있으면 정식강좌로 개설한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을 위한 뇌졸중·치매예방 등의 건강강좌도 인기 강좌 중 하나로 꼽힌다.

이밖에도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독서실, 서예실, 컴퓨터실, 바둑·장기실, 영화감상실 등 각종 취미 교실이 마련돼 있으며, 입주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탁구장, 당구장, 노래방, 게이트볼장, 워킹트랙, 지압산책로, 휴게소 등의 시설도 갖춰져 있어 노후의 활기찬 생활이 보장된다.

옥외 시설로는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텃밭도 제공한다.

매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으로 회원의 하루하루가 무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몸이 불편한 회원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물품구매 대행, 관청업무 대행, 식사배달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있다. The-K서드에이지에서 보내는 24시간이 행복 그 자체인 이유다.

개원 10주년 프로모션 진행

The-K서드에이지는 60세 이상 성인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일정액의 입주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월 이용료에는 1일 3번의 식사, 주 1회 거실 청소와 침구류 세탁서비스, 여가프로그램, 부대시설 이용, 월 1~2회 나들이 행사 등이 포함된다. 입주보증금은 퇴거 즉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한편, The-K서드에이지는 오는 11월 20일인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신규 계약 후 입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입주보증금 할인 ▶입주보증금 잔금 유예 ▶월 이용료 감면 ▶무료 숙박권 제공 ▶생활가구 지원 ▶유료서비스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K서드에이지

- 📍 경상남도 창원군 고암면 상대2길 16
- ☎ 055-530-8211/8213
- 🌐 www.third-age.co.kr

Q.
입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A. 인생의 전환점을
찾은 기본입니다.
인정숙 님

4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가 1999년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든 교단을 떠나 허전함을 달래면서 정신적으로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팔순 잔치를 치르고 보니 이제는 여생을 돌보며 제3의 인생을 여파란듯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절절한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전 우리 부부가 함께 찾은 곳이 이곳 서드에이지입니다. 무료 체험을 통해 실제 생활을 해보고 식단표에 따른 식사를 해보니 여기야말로 삼시세끼 식사 준비에 애 먹을 일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드에이지는 어느 유명 아파트보다 제3의 인생을 살기에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며, 문화생활을 위한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 공간이 넓고 쾌적하며 위생적일뿐더러 운동에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취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들의 자치 활동 모임인 입주자협의회 구성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회원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봉사·취미 활동을 도와주고, 다양한 한마당 잔치를 주관하며, 각종 동호회를 지원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의화장을 맡은 지금, 올해에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서드에이지 노래를 제작해서 모든 회원이 서드에이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즐겨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A. 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김중희 님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았던 저는 수업 중 어쩔 수 없이 들이마시게 되는 분필 가루 때문에 기관지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5년에는 가슴기 살균제로 인해 천식을 앓게 되어 아침저녁으로 흡인제를 마셔야 하는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고, 정년 2년을 앞둔 2007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해 10월에 The-K서드에이지에서 진행한 무료 체험을 통해 입주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일생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드에이지는 도시근교형 실버타운으로 주변 경치가 무척 아름답고 청정합니다. 주거동에는 각종 문화생활을 돕는 시설도 갖춰져 있어 생활이 늘 즐겁습니다. 동호회도 10여 가지가 있어 활기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와서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자와 담소하고 웃다 보면 새로운 친구가 생겨 외로움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시설을 건립해주신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번 구경 오세요. 저와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서드에이지의
다양한
부대시설**



경남 창원군 고암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 지상 15층으로 각종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찜질방, 게이트볼장, 워킹트랙, 텃밭 등)을 구비한 The-K서드에이지는 의료부터 문화시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호텔 복지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다. 대구·창원·부산 등 인근 대도시와 가깝고 화왕산 근린공원·부곡온천·우포늪 등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도시근교형과 전원형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





공제회 제21대 대의원회 출범

전국 76만 공제회원을 대표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제21대 대의원회가 11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대의원회는 공제회 최고 의결기구로 정관 변경,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심의, 결산보고, 기타 공제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을 의결한다. 17개 시·도별로 3명에서 10명까지 총 정수 82명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제21대 대의원회는 각 시·도별로 구성된 대의원 선출위원회를 통해 지난 9월말 선출 완료됐다. 선출위원회는 각급 학교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시·도별로 교육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공제회 지부장 등이 지명하는 위원 5~9명으로 구성된다. 21대 대의원회의 여성 대의원은 지난 20대 대의원회에 비해 3명 늘어난 27명이며, 퇴직한 특별회원은 4명이다.



'5060 액티브시니어' 공제회원 초청 ... 7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5060 액티브시니어' 회원 초청 행사를 11월 서울, 인천, 경기(수원) 지역에서 개최한다. 액티브시니어란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60대를 일컫는 신조어다. 교직원공제회는 퇴직을 앞둔 회원들의 은퇴 준비에 도움을 주

기 위해 건강과 풍요로운 노후, 자산관리와 은퇴설계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지난 5~6월 전국 6개 지역에서 처음 선보여 회원에게 호평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방송·저술 활동으로 '비타민 교수'라 불리는 전형주 교수가 '100세를 위한 회춘밥상법과 일상의 운동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행사는 120분 정도 소요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원할 경우 11월 1~7일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응모하면 된다. 부부동반 행사이며,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퇴직예정 공제회원만 신청 가능하다.

지역	일시	장소	초청인원
서울	11월 15일(수) 오후 7시	63컨벤션센터	100명(부부동반 200명)
인천	11월 22일(수) 오후 7시	공제회 인천회관	70명(부부동반 140명)
경기	11월 23일(목) 오후 7시	공제회 경기남부회관	50명(부부동반 100명)

문의
회원콜센터
1577-3400

'교직원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 11월부터 선보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365일 교육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직원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를 11월 6일부터 시작한다. 교직원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는 평상시 건강관련 상담부터 질병 발생에 따른 관리 서비스까지 전문 분야별 의사·간호사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이다. 제공 서비스는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 건강·심리상담, 검진예약 및 검진항목 설계 ▶사고·질병 발생 시 의료 지원 - 전문병원 안내, 진료예약대행, 간호사동행, 차량에스코트 ▶교직원 특화서비스 - 만성질환 관리, 해외긴급의료지원, 슈퍼맘케어, 치매자가진단 및 예방관리프로그램으로 나뉜다. 11월 이후 교직원공제회 종합공제(1610)와 더블업종합공제(1610)에 3구좌 이상 신규 가입한 피보험자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백세누리행복공제(기본형, 생애주기형) ▶종합공제(1510·1610) ▶더블업종합공제(1510·1610)에 3구좌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이용 가능하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신규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동의서 작성, 기존 고객은 안내전화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 유효기간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다음달부터 3년간이며, 기존 가입자는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년간이다. 서비스 이용은 대상자에 한해 헬스케어 서비스 콜센터로 전화(02-3449-3532)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aaihc.com/partner/ktcu/>) 참조

☎ 문의 공제회 보험사업부 02-767-0356





The-K 행복서비스 ‘에듀&Joy’ 행사 인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0월 680여 공제회원 가족을 초청해 ‘에듀&Joy’ 회원가족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에듀&Joy는 The-K행복서비스의 대표적인 가족 단위 교육 문화 체험 행사다. 지난해 진행된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는 등 가족과 함께 자연 속 체험을 즐겼던 ‘자연&Joy’ 행사에 올해에는 직업 체험관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추가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먼저 10월 15일 경기 성남의 한국잡월드에서 개최된 직업체험 행사. 어린이와 청소년 두 파트로 나뉘어 각각 300여 가족이 초청돼 진행됐다. 어린이체험관에 입장한 가족들은 경찰서·슈퍼마켓·자동차정비소·택배회사 등 40여 체험코스를 자유롭게 이용한 후 가족뮤지컬 앤서니 브라운 원작의 ‘돼지책’을 함께 관람했다. 같은 시간 청소년 체험관에 입장한 가족의 경우 자녀는 항공사·종합병원·인터넷쇼핑몰·방송국·우주센터 등 30여 체험코스를 이용했고, 부모는 소설가 김영하 씨의 ‘나는 왜 창의적이지 않을까’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10월 21일에는 40여 회원 가족이 전북 고창 상하농원에 초청돼 소시



지 만들기과 동물 먹이 주기 체험 등을 했다. 22일에는 40여 회원 가족이 충북 충주 햇살아래체험농장에 초청돼 사과·땅콩 등의 농작물 수확과 동물 먹이주기 체험 등의 시간을 가졌다. 에듀&Joy에 초청된 회원 가족은 공제회 홈페이지 응모 후 선정됐다. 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안에 씨네&Joy, 행복나눔콘서트, 문화심터樂 등 회원들의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씨네&JOY’ 영화예매권 증정 이벤트 ... 12일까지 응모

올해 8번째 ‘씨네&JOY’ 영화예매권 증정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에 선정된 영화는 ‘저스티스 리그’와 ‘꾼’이다. ‘저스티스 리그’는 배트맨이 더 강력한 적수와 맞서기 위해 원더우먼, 아쿠아맨, 사이보그, 플래시와 함께 유례없는 히어로 팀을 결성해 재앙 수준의 엄청난 공습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한국영화 ‘꾼’은 희대의 사기꾼을 잡기 위해 검사와 비공식 수사 루트인, ‘사기꾼 잡는 사기꾼팀’의 속고 속이는 예측불가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유지태, 현빈, 배성우, 박성웅 등이 출연한다. 교직원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로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며, 한 가지 영화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된 회원에게는 휴대전화로 모바일 예매권 (1인 2매)이 발송된다.



- ▶ **당첨인원** : 공제회원 1만 명(영화당 5천 명씩, 1인 2매 제공)
- ▶ **응모기간** : 11월 3일(금) ~ 12일(일)
- ▶ **당첨발표** : 11월 16일(목) 홈페이지
- ▶ **문의** : 1577-3400

퇴직 회원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 성황

The-K 은빛동행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에 응모한 특별회원이 308명이었으며 그중 10명이 선정됐다.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에게 보다 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교직원공제회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7명의 심사위원이 항목요건 준수, 충실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선정된 회원들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12월까지 자서전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가족과 지인 등을 초청해 출간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다함, 창립 8주년 기념 '888 이벤트' 개최



The-K예다함상조는 창립 8주년을 기념해 '888 이벤트'를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

간 예다함(390, 450, 500, VIP 상품)에 가입한 공제회원에게 ▶8회차 납입금 면제 ▶매월 88명 추첨 스타벅스 기프트콘 2매 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또 2구좌 이상 가입 시 구좌당 모바일상품권 5만원을 추가로 증정한다.

더불어 어려운 이웃돕기에 동참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예다함은 지난해부터 '사랑(愛)다함' 프로젝트를 진행해 다이렉트 채널 등으로 가입한 고객의 초회 납입금 10%를 적립한 금액과 매월 임직원 급여의 자투리 금액을 모금한 기부금을 사회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내 800구좌를 달성하면 기존보다 8% 높은 납입금의 18%를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yedaham.co.kr) 참조

상조업계 최초 'CSV 포터상' 수상



한편, 예다함은 지난 9월 열린 '제4회 CSV 포터상 시상식'에서 상조업계 최초로 프로세스 부문에서 수상했다. 'CSV 포터상'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활동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며, 예다함은 '사랑(愛)다함' 프로젝트를 비롯해 연탄나눔 봉사활동, 저소득 조손가정 장례 지원, 장례 관련 학과 대학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가입·상담 1566-6644

The-K호텔서울, 겨울 패키지 출시

The-K호텔서울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 A는 객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에 15만원 ▶패키지 B는 객실 1박, 더파크 석식 뷔페 2인에 18만원 ▶패키지 C는 객실 1박,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인 구성에 12만9000원이다. 패키지 이용 고객은 우첼로·더파크·더케

이텔리의 식음료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코엑스 아쿠아리움 20% 할인 쿠폰(1매 4인까지 사용 가능)도 받는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The-K호텔서울은 조깅 코스와 근처 예술공원까지 연결된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고 시민의 숲과 가까워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이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 문의 02-571-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연박 할인 프로모션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연박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리산가족호텔을 3박 이상 이용하면 객실 요금을 공제회원가에서 최대 20% 할인해 주고, 7박 이상 이용하면 1박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남 구례에 위치한 콘도형 가족호텔인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건강과 피로 해소에 좋은 온천수로도 유명하다. 게르마늄과 탄산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유향천으로 아토피와 신경통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문의 061-783-8100



11월 즉석 당첨 이벤트

이벤트 기간 11월 1일~25일

QR코드로 바로 당첨을 확인하는 <The-K 매거진>만의 이벤트!
총 50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화 상품권
1만원권
(모바일)



CU 상품권
5천원권
(모바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트콘



QR코드를 스캔하여 지금 바로 당첨 확인하세요!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찍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1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프트콘은 12월 중순 발송 예정)

The-K INFORMATION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1971년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회원수 76만명, 자산 31조원,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8개 출자회사(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손해보험, The-K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 The-K서드에이지, The-K예다함상조, The-K교직원나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되면 다양한 복지 제도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일반회원이,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 가입하면 특별회원이 됩니다. 일반회원 가입 자격은 ▲국·공립 각급학교, 교육연수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공무원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 등이며, 특별회원 가입 자격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으로 퇴직한 교직원 ▲만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 콜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콜센터

☎ 1577-3400

홈페이지



저축

교육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고수익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교육가족의 노후 자금 마련 위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
이율 : 연복리 3.6%, 한도 : 3만원~60만원까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여유로운 노후 위한 고이율 연금형 상품
이율 : 연2.8% 연복리, 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이내

목돈급여

현직 회원 위한 고수익 저축상품
이율 : 연2.2%, 종류 :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퇴직생활급여

안정적 노후를 위한 고수익 저축상품
종류(이율) : 부가금형(연2.2%), 확정연금형(연2.8%), 적립형(연2.2%)



대여

교육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간편하고 신속한 대여제도

일반대여 (이율:연 3.6%)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한도 내
보증대여 : 장기저축급여 한도 초과시
※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 가능

The-K복지누리대여(이율:연2.99%)

미소누리 최초대여 : 대여 처음 이용시 최고 3,000만원
행복누리 결혼대여 : 결혼 전·후 6개월 이내 최고 3,000만원
희망누리 출산대여 : 출산·입양 후 3년 이내 최고 1,000만원

무이자대여(1년 또는 2년동안 원금 분할 상환)

보건의료자금 : 폐결핵 진단 또는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시 최고 500만원
재해복구자금 : 주택 재해로 물질적 피해시 최고 1,000만원
※ 저축·대여 이율은 변동금리입니다.



Media

매거진, 뉴스레터, SNS ...
열린공간, 열린소통



The-K News Letter

한 달에 2회 최신 정보를 전달합니다.

수신방법 :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변경에서 이메일 수신동의



네이버블로그
'교육가족의 다락방(多樂房)'



페이스북
@withKTCU



인스타그램
@withktcu

보험

비용은 축소하고 보장은 확대한
교육가족 맞춤형 보험제도

보장기간	0세	20세	40세	60세	80세	100세	종신
종합 보험	종합공제 ¹⁶¹⁰						
	더블업종합공제 ¹⁶¹⁰						
건강·질병 보험	두번보장암공제 ¹⁶¹²						
	교직원라이프건강공제 ^{1707(갱신형)}						
자녀 보험	자녀공제 ¹⁶¹²						
	명품자녀공제 ¹⁶¹⁰						
시니어 보험	시니어공제 ¹⁶¹²						
	시니어암공제 ^{1610(갱신형)}						
	교직원라이프간편가입공제 ^{1707(갱신형)}						
재해보험	재해공제 ¹⁶¹²						

보험콜센터
☎1577-3993

홈페이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 '교직원라이프'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교직원복지기관의 제도로써 최고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보장합니다. 대부분 갱신형이 아닌 확정형 상품으로 가입시점 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국내 최초의 교직원 전용 위험률 운영 및 낮은 사업비 책정 등으로 민영사 대비 저렴한 부담금을 자랑합니다. 교직원과 그 가족만이 가입 가능한 특권입니다.



행복서비스

교육가족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고품격 문화복지행사

문화·예술 : 문화심터 樂(뮤지컬·콘서트 초청), 한여름밤의 클래식 산책, 매직콘서트, 행복나눔콘서트,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파크콘서트

도서 : 북&Joy(도서증정, 저자강연회)

스포츠 : 스포츠&Joy(스포츠 관람 초청)

영화 : 씨네&Joy(영화예매권 증정)

취미·여가 : 컬처&Joy, 자연&Joy, 은빛동행(퇴직회원 위한 행사)



복지혜택

회원의 생애주기별 지급하는
다양한 부조와 기념품

신규회원 가입축하기념품 : 최초 장기저축급여 가입시 '기내용 캐리어' 증정

재가입 축하기념품 : 탈퇴 후 재가입시 '스팀다리미' 지급

결혼기념품 : 결혼시 '진공청소기, 핸드블랜더, 침구청소기' 중 택일

출산축하금 : 자녀 출산 시 한 명당 10만원 지급(셋째 이상 30만원 지급)

고구좌회원축하금 : 장기저축급여 누적 구좌수 상위 1% 회원에게 20만원 지급

특별회원 가입축하기념품 : 퇴직생활급여 가입 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약정시 '안마기' 지급

상병급여금 :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 퇴직시 최고 500만원 지급

유족급여금 : 재직 중 사망시 일반사망 100만원 지급

종합공제(1610)

교직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종합보험

더블업종합공제(1610)

은퇴 이후 2배로 보장받는 종합보험

두번보장암공제(1612)

두 번째 암까지 똑똑하게 보장받는 암보험

교직원라이프건강공제(1707)-갱신형

100세까지 빈틈없는 설계로 실속있는 건강보험

자녀공제(1612)

월 1만원으로 자녀를 지키는 어린이보험

명품자녀공제(1610)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하는 어린이보험

시니어공제(1612)

제2의 인생, 시니어라이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시니어암공제(1610)-갱신형

고령층(고혈압·당뇨환자 포함) 위한 암보험

교직원라이프간편가입공제(1707)-갱신형

유병자, 고령자를 위한 간편가입보험

예약 및 상담

숙박시설

교직원공제회 출자호텔(회원할인)

The-K호텔서울 ☎02-571-8100

The-K호텔경주 ☎054-745-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061-783-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033-639-810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064-729-8100

대명·한화리조트(법인회원권 이용)

대명리조트 전국 12개소

한화리조트 전국 12개소

※ 예약 : ☎교직원나라(teachiworld.com)

문의 : ☎1577-1382

레저·생활

소피아그린 CC(골프장) ☎031-887-8100

The-K서드에이지(실버타운)

☎055-530-8100

The-K손해보험 ☎1566-3000

The-K저축은행 ☎02-569-5600

The-K에다합상조 ☎1566-6644

티처월드(교직원 온라인 복지사이트)

☎teachiworld.com ☎1577-1382

S2B(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kr ☎1577-3309

B2B(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teachiworld.com ☎1566-5626

무료 세무상담(세무사)

서울 송영주 ☎02-3473-3401

인천 유명석 ☎032-864-9922

대전 주우성 ☎042-253-6901

광주 김영빈 ☎062-371-9611

대구 안중동 ☎053-654-8433

부산 강연경 ☎051-611-1125

무료 법률상담(변호사)

서울 이규철 ☎02-3016-5335

유수왕 ☎02-2051-8881

김병직 ☎02-592-7456

부산 이재호 ☎051-506-7381

대구 박경환 ☎053-751-6637

인천 박준범 ☎032-866-5660

광주 이기연 ☎062-226-6755

대전 광노준 ☎042-369-6900

울산 이상구 ☎052-272-6000

경기 이영직 ☎031-386-0100

강원 유지한 ☎033-255-5601

충북 윤경식 ☎043-292-8008

전북 김대호 ☎063-275-0006

경남 김상균 ☎055-266-4747

제주 나인수 ☎064-726-6605

회원 예식장

전국 7개 교직원공제회관 예식장

부산(부산역) ☎051-464-6767

대구(범어역) ☎053-742-5400

광주(농성동) ☎062-352-1331

대전(탄방동) ☎042-488-1111

경기(수원시청역) ☎031-224-2030

강원(춘천터미널) ☎033-257-2921

전북(전주 서신동) ☎063-253-9790

